

연구
논문

박태준과 그의 정신, 그리고 포스코의 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진덕

1. 머리말: 반태준의 정신주의(精神主義)와 국가(國家)와 기업(企業)

청암 박태준은 가난하고 힘없는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2011년 12월 13일 향년 84세로 눈을 감았다. 언론은 그의 죽음을 크게 다루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60년대 저 황폐한 시절,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종합제철소를 세웠고 이 제철소를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했다는 사실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박태준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그의 위대한 성취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으니, 그의 죽음에 수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위대한 성취 이면에 위대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영일만과 광양만에 세워진 두 제철소는 거대한 위용(偉容)을 자랑한다.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바로 그 위용 속에 박태준의 필생의 노력이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위용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형적인 성취는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박태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도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변화하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변하지 않는 정신(精神)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거대한 위용의 성취마저 그 정신의 외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이 체(體)라면 성취는 용(用)이고, 정신이 본(本)이라면 성취는 말(末)이다. 청암의 위대한 성취를 알려면 먼저 그의 위대한 정신을 알아야 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박태준의 전기를 쓴 작가 이대환은 자신이 그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의 위대한 정신에서 찾았다. 이대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지켜본 박태준의 최고 매력은 무엇인가? 지장, 덕장, 용장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그의 탁월한 능력인가? 흔히들 그것을 꼽는다. 나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매력으로 꼽지는 않는다. 내 시선이 포착한 그의 최고 매력은 ‘정신적 가치’를 가치의 최상에 두는 삶의 태도였다. 그의 삶은 늘 통속을 거부했다.” 이대환, 『박태준의 길, 젊은이의 길』, 『청암 박태준』, 아시아, 2012, p.76.

박태준은 지혜와 덕성과 용기를 두루 갖춘 리더이기 이전에 요지부동의 탁월한 정신주의자였고,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태준이 보여준 지혜와 덕성과 용기도 결국은 그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대환은 잘 알았던 것 같다. 이대환의 다음 말은 그것을 입증해준다. “그(박태준)의 영혼은 강철 같은 정신(신념)의 덩어리였다. 그는 모든 공사(公事)를 그것으로 철저히 관장하고 처리했으며, 그것으로 물질적 유혹을 제압하고 배격했다.” 같은 곳, p.78.

박태준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물질적 유혹을 이겨내고 포항제철 건립이라는 공공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만든 모든 ‘힘’이 그의 “강철 같은 정신”에서 방사(放射)되어 나왔다는 말이다. 위용을 자랑하는 저 포항제철은 결국 박태준의 정신이 빚어낸 작품이다.

박태준은 그 정신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포항제철 직원들에게까지 서슴지 않고 요구했다. 그는 포항제철 직원을 “공인(公人)”으로 보았다. 그는 말한다. “근무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이며, 두뇌가 결코 정신에 우선할 수 없다.” 임원간담회, 1984.8.20.

그는 더 나아가 정신이 없는 기업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업은 그 기업 나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정신은 그 기업의 개성이면 잠재력이다. 그 기업 특유의 강한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기업은 그 기초도 견고하고 어떠한 역경에 부딪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동요치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製鐵報國의 意志』,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5, p.41.(1979. 5. 1. 임원간담회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기업은 정신적 가치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박태준 자신이 이윤추구에 철저했기에 포항제철은 1972 년 조업 개시 불과 6 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그 이후에도 박태준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손익 계산을 무시한 채 어설프게 정신적 가치만 앞세우다 보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기업이 이윤동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장이건 종업원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만 사는 하늘나라라면 애초에 기업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기적 인간들이 모여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조직된 기업에 대해 함부로 정신주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정신주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들은 그다지 정신적이지 못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즐겨 정신주의적 훈화를 늘어놓는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저의가 불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훈화를 듣는 부하 직원들은 자신들을 더 쥐어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코웃음을 치기도 한다. 이익이나 이윤과는 무관하게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영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과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너무 고답적일 뿐만 아니라, 값싸게 부하 직원들의 헌신을 유도하려 든다는 점에서 음흉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이기심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신을 물질보다 더 강조하는 정신주의는, 좌파 유물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실제로 가진 자들의 기만적 술수일 수도 있다.

또한 정신주의는 왠지 전체주의적 냄새가 나는 개발연대의 낡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느낌도 있다. 돌이켜 보면 개발연대를 풍미했던 각종 정신주의적 구호를 두고 일제시대 이래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많았다. 그들의 비판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절박했던 우리의 생존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는 ‘정신’ 외에 달리 의지할 데가 없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형편이 그러냐고 되물을 수 있다. 지금은 물론 크게 달라졌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치열하게 국제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 여전히 ‘정신’에 호소하는 것은 낡아빠진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인간은 단지 이기적 동물에 불과하고, 그런 인간이 모여 만든 기업의 최종 목표는 오직 이윤 극대화에만 있는 것일까?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정신적 가치를 운위(云謂)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만적 술수에 불과한 것일까? 기만적 술수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21세기라 해서 인간과 기업이 20세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백 억년 전의 태양은 백 억년 뒤에도 꼭 같이 떠오르고 있지 아니한가?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되건, 인류사회가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을 늘리기만 하면 기업과 기업인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일까? 기업과 정신은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마침내 빈곤을 극복하고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국제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이 땅의 기업과 기업인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省察)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 같은 성찰을 위해 정신주의적 기업인 박태준의 그 “강철 같은 정신”에 대해,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들과는 출발점부터 달랐던

포스코(POSCO)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태준과 포스코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사명이라든가 인류공영(人類共榮)에의 헌신과 같은 각종 정신적 가치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고 반드시 같이 가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모범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박태준의 정신주의와 포스코라는 기업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 안에서 국가와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해야 한다. 박태준은 국가가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식민본국 일본에서 설움을 받으며 성장했다. 식민지 백성의 설움은 박태준의 정신이 성장하는 터전이었고, 그의 정신은 독립된 조국의 분단, 남북 간의 전쟁, 처참한 빈곤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더욱 단단하게 다져져 마침내 결사적인 조국애가 되었다. 그의 결사적인 조국애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불퇴전의 단호한 의지가 되었고, 바로 그 의지가 영일만 모래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의 비극도, 박태준의 정신도, 포스코라는 기업도 모두 인간의 온갖 소유욕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세계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만약 우리 모두 천사들처럼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면, 혹은 반대로 짐승들처럼 자연세계에 살고 있다면, 역사도 없고 역사의 비극도 없을 것이다. 박태준의 정신이나 포스코라는 기업도 거기서는 불필요할 것이다. 온갖 소유욕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세계는 선과 악이 뒤섞이고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계다. 그래서 플라톤과 공자 이래 동서양의 수많은 이상주의자들(idealists)은 역사세계를 떠난 곳에서 불변의 진리(眞理)를 찾고자 한다. 우리가 대학의 철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식욕, 성욕, 명예욕, 재산욕 등 인간의 소유욕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소유욕이 없다면 인간이 인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소유욕과 그것이 빚어내는 역사세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런 진리는 참된 진리일 수 없을 것이다. 진리(=存在=道)는 하늘나라나 자연세계에만 있는 것일 수는 없다. 진리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역사세계에도 있어야 한다.

서양의 근대를 철학적으로 종합했던 위대한 철학자 헤겔(Hegel)은 역사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로 보았다. 절대정신은 신이고 진리다. 헤겔의 말은 역사적 사건들 모두가 신의 드러남이라는 뜻이다. 헤겔은 진리 혹은 신이 다 드러나려면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목적론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는 진리(=道)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세계 어디에나 다 있다고 보았다. 노자와 장자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가 곧 진리인 셈이다. 장자의 위대한 주석가 곽상(郭象)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이 따로 있다고

보는, 도가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면서, “인간의 모든 작위(作爲)가 다 자연(人皆自然)”이라 단언했다. 郭慶藩, 『莊子集釋』大宗師, 中華書局.

여기서 자연은 진리와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소유욕도, 그것이 빚어내는 역사세계도, 그 역사세계를 떠나지 않았던 박태준의 정신도, 그의 정신이 빚어낸 포스코도 모두 다 진리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진리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면 역사세계 안에서 영위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활동은 무의미해진다. 박태준의 정신을 이해하고 포스코라는 기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의 역사현실을 부정하면서 진리는 저 멀리 따로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오랜 상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사유해야 한다.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진리는 지금 이곳의 우리에게서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따로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곧 진리가 아닐까?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진리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진리 아닌 것은 없게 된다. 박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포스코라는 기업도 진리가 아닐 수 없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긍정. 바로 이것이 긍정적 사유의 핵심이다. 하지만 좌익 이상주의(관념론, idealism)가 판을 치고 있는 우리의 지적 풍토에서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유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과 정신의 공존(共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기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인간의 욕망과 소유욕에 바탕을 두고서 국가가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와 기업을 단지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와 기업은 진리이고 그래서 성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그렇게 저속하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2. 인간의 욕망과 대립, 투쟁, 갈등, 그리고 국가의 의미

인간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상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먹는다는 것은 나 아닌 타자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그것을 씹어 내 몸의 일부로 소유하는 행위이다. 먹고자 하는 욕망 즉 식욕(食欲)은 개체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몸을 가진 인간에게는 식욕 외에 종족 보존을 위한 성욕(性欲)도 있다. 성욕은 이성(異性)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내 것으로 소유하여 나의 종족을 보존하려는 욕망이다. 성욕의 충족을 통해 종족이 이어져 나간다. 식욕과 성욕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다. 맹자(孟子)는 “식색(食色)은 천성(天性)”이라 말했다. “식욕(食)”과 “성욕(色)”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天性)”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식욕과 성욕도 진리라는 것이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개체 보존이 안 되고 섹스를 하지 않으면 종족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식욕과 성욕을 채우기 위해 평생토록 분투, 노력한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 인간이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욕망(desire)이고, 욕망 중에서도 특히 소유욕(desire to have)이다. 소유욕의 충족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I think, therefore I am)”라는 데카르트의 저 유명한 명제는, 인간중심주의를 선포하면서 근대의 새벽을 열었지만, 인간의 소유욕이 갖는 현실적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차라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I have, therefore I am.)”

몸을 가진 인간은 소유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소유와 존재는 늘 같이 간다. 함부로 소유와 존재를 둘로 나누고 무소유를 예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철학은 무책임한 낭만주의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 가족, 사회, 국가, 기업, 학교, 군대 등 인간세상의 온갖 조직들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고안된 것들이다. 인간의 사유란 것도, 일견 고상해보이지만,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소유를 위한 것이다. ‘인간은 곧 소유욕’이라는 현실을 직시(直視)해야 가족과 사회, 국가와 기업, 군대와 학교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소유욕은 동물과 공유하는 욕망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불변의 도덕적인 선(the moral goodness)이나 사회적 정의(the social justice)를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욕망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데 도덕적 선이나 사회적 정의는 불변이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이상주의적(관념론적) 철학사상은 인간의 욕망 혹은 소유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플라톤철학과 기독교사상, 동양의 유교사상이 그렇다. 조선조를 지배해온 주자학은 특히 더 그렇다. 주자학은 “인욕(人欲)을 멸(滅)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라”고 가르친다. 식욕과 성욕도 지나치면 인욕이 된다. 식욕과 성욕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소유욕의 충족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간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가족과 사회도, 국가와 기업, 군대와 학교도 모두 부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인간은 식욕과 성욕의 충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겐 없는 특별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명예욕이다. 명예욕이란 내가 타인보다 우월함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내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고 싶은 욕망이다. 바로 이 명예욕이 동물세계에는 없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과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잘난 체 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인간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비극의 무대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비교의식에 바탕을 둔 저 명예욕에 있다.

그러나 명예욕과 대립, 갈등, 투쟁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이면에는 인간들 사이의 증오가 있지만 인간의 사랑도 그것들을 떠나 따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증오하면서 사랑할 뿐이다. 미움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사랑이 좋다면 미움도 좋다고 말해야 한다. 명예욕도 그렇다. 식욕과 성욕이 천성이라면 명예욕 역시 천성이라고 보아 그것을 긍정해주어야 한다. 식욕과 성욕이 충족되어야 하듯이 명예욕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 누구나 간절히 사람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욕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남보다 우월함을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나와 남 사이에 대립, 갈등, 투쟁이 불가피하다. 나와 남의 투쟁에서 목숨을 건 자는 승자가 되고, 목숨이 아까워 물러선 자는 패자가 된다.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는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고정 불변일 수 없다. 주인이 인생을 향락하는 사이에 열심히 일한 노예가 주인을 밀어내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헤겔의 이른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그러나 대립, 갈등, 투쟁도 나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대립, 갈등,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다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利器)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차세계대전 중에 발명되었다. 대립, 갈등, 투쟁이 없다면 오직 정체가 있을 뿐, 역사발전은 없다. 대립, 갈등, 투쟁의 비극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과 사회, 국가와 기업에 대해 일별해본다. 이것은 박태준이 평생 헌신했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가족은 종족 보존을 위한 성육의 총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물학적 조직이다. 인간은 항상 자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부모에 의해 양육된 다음 바깥세상으로 나가 타인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각종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형성하고 역사를 발전시킨다.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회조직의 기초가 된다. 인간사회란, 흠스와 같은 자연법론자들이 말하듯 개인과 개인의 연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연쇄라 할 수 있다. 가족과 가족은 혼인에 의해 연결된다. 그 가족이 커지면 종족이 된다. 동양인들이 옛날부터 흔히 쓰는 “백성”(百姓)이란 말은 백 가지 성씨의 종족들이란 뜻이다. 종족과 종족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커져 도시가 되고, 도시는 국가가 된다.

가족이 종족이 되고, 종족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다가, 급기야 국가를 이루게 되는 이 모든 역사발전의 배경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대립, 갈등, 투쟁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있다. 전쟁은 역사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비극이고 이 비극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 즉 고대국가는 예외 없이 군사조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히랍과 로마의 국가도 군사조직이었고, 중국 춘추전국시대나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국가도 군사조직이었다. 고대국가는 군사조직이므로 그 주역은 당연히 동서를 막론하고 무사(武士)들이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의 유교국가라든가 특히 우리의 조선왕조에서는 유교적 교양을 익힌 문사(文士)들이 국정을 전담하는데, 이것은 세계사에 있어 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유교는 국방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사를 천시한다. 조선조가 왜란과 호란에 시달린 것은 그 때문이었다. 국방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사를 천시한다는 것은 실은 국가의식의 결여를 뜻한다. 오늘날 우리 지식인 사회는 좌파 이상주의가 득세하여 국가의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국가의 이상적 상태에만 관심을 갖다보면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현실태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문사(文士)들의 이상국가론(理想國家論)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근대 민주국가에서도 외침을 막기 위한 군대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 필수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자신의 본질 속에 늘 합법화된 폭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그 폭력을 악(惡)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대립, 갈등, 투쟁 속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확보하려면 국가라는

인위적인 조직체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날까지 국가는 형태가 바뀔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흔히 국가와 민족을 한 묶음으로 말하지만, 국가와 민족은 엄연히 다르다. 민족은 있어도 국가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국가가 없는 민족의 설움을 기억하고 있다. 민족(民族)은 혈연으로 얹혀 정감이 통하는 친근한 집단인 반면, 국가(國家)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가라는 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강제력을 갖기에 마치 괴물과도 같다. 홉스는 국가를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 불렀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민족에는 쉽게 감동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그런 괴물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를 상실하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설움 받는 민족에게는 그 괴물 같은 국가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것일 수 있다. 국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시절 식민지 백성의 설움을 뼈저리게 맛보았던 박태준의 조국애, 그것도 결사적인 그의 조국애가 갖는 다양한 차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사고파는 행위의 위대함, 그리고 기업과 근대사회의 출현

근대에는 상업이 공업과 함께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된다. 근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유럽의 백인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과 민주주의(democracy)를 두 축으로 하는 근대문명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문명이 되었다. 근대문명 이전에 그 어떤 문명도, 이집트 문명이건 중국 문명이건, 지구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 어느 나라를 가건 학교의 공식 교과과정은 유럽 근대문명으로 채워져 있다. 근대문명이 글로벌함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 찬란한 근대문명을 가능케 했던 근본적인 동력이 이윤을 얻기 위해 사고파는 행위 즉 상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고파는 행위의 불순함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도 사고파는 행위의 위대함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먼 옛날 종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종족이나 다른 마을과 물물교환을 했다. 물품 외에 여자 역시 종족과 종족 사이에 교환의 대상이었다. 물물교환의 '주고받기'는 상업의 '사고팔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고받기는 평등교환인 반면, 사고팔기는 불평등교환이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엄밀한 경계선은 없다. 평등교환이란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렵다. 인간에게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물물교환의 주고받기가 한쪽에는 이득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손해가 되는 불평등교환으로 바뀌면서 사고파는 상업 행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사고파는 불평등 교환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시장(市場)이다. 시장이야말로 저 찬란한 근대문명의 진정한 발상지인 것이다.

이윤을 얻기 위해 사고파는 상업 행위는, 이윤동기에서 시작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대립, 갈등, 투쟁을 낳기 때문에,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는 상인은 농업생산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부당하게 중간이익을 가로챈다고 여겨져 기생충 같은 존재로 천시되었다. 특히 유교에 의해 지배된 우리의 조선조에서는 오백년 동안 그러했다. 게다가 상인은 사치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의 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었다. 상인을 장돌뱅이라 불렀다. 상인에 대한 천시는 수공업자 혹은 장인에 대한 천시보다 훨씬 더 심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자급자족(自給自足)이 가능한 사회는 없다.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치품을 구할 경우에는 더욱더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자급자족을 고집하면서 외부와의 교역을 거부한다면 생활수준을 자꾸 떨어지고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할 경우, 사치품이건 생필품이건 외부로부터 적시에 공급해주는 상인이 필요하다. 상인이 없다면 인간의 여러 가지 소유욕은 채워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상인과 상업을 천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상업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윤동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기적(利己的)이다. 이기적인 행위를 두고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업은 이타적(利他的)이기도 하다. 상인이 취하는 이득은 그 이타성에 대한 대가로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런 이타성도 없이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상업 행위가 아니라 사기 행각일 뿐이다. 정당한 상업 행위는 그 자체 봉사일 수 있다. 대가 없는 봉사만이 봉사인 것은 아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상업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행위임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인 상업의 이중성(二重性)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한다. 공자는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말했다.
『論語』里仁,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하지만 책에서 읽은 대로 정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군자도 속으로는 소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식욕, 성욕, 명예욕을 가지고 있어, 소유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생래적으로 소인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자에 따르면 상업은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군자의 길이 아니라 소인의 길에 속한다. 하지만 소인의 바로 그 이기적인 길이, 이익을 좋아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엄청나게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역설적인 사실을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상인과 상업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림길이 있다.

상인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 비해 부유하다. 상인이 가진 부를 비난하는 데 열중하다 보면 상업의 이타성(利他性)에 주목하기가 어려워진다. 상업의 이타성은 필요한 물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업은 한 사회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폐쇄적인 사회는 공통적으로 상인과 상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상업은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소통의 힘이다. 먼 옛날 중앙아시아 초원의 실크로드를 오고간 주역도 상인이고,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주역도 상인이다.

그뿐만 아니다. 상인은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내수공업을 공장제수공업으로 바꾸었고, 급기야는 과학혁명의 기술적 성과를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이로써 손이나 도구가 아니라 기계에 의존하여 상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업의 발전 즉 산업화(industrialization)야말로 근대의 실질적 출발이고, 그 진짜 주체는 상인이었다.

자연적 제약에 묶여 있는 농업 생산 외에 공업 생산이 있어야 상업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처음엔 상업이 공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다시 공업의 발전이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상업과 공업이 상승 작용을 하면서 동반 발전함으로써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인류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문화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이 없다면 문화수준의 향상도 없다.

상공업은 농업이나 목축과 다르다. 농업이나 목축에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연에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반면 상공업에서는 자연에의 순종보다는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작위(作爲)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의 작위에는 인간의 사유, 노동, 의지 등이 모두 다 포함된다. 따라서 상공업이 주된 산업으로 등장하는 근대세계의 인간은 자연을 객체로 보고 자신을 주체로 보는 “자연의 지배자(master of nature)”이다. 르네 데카르트, 『철학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는 인간중심주의(humanism)의 극명한 표현이다. 근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신 중심 혹은 자연 중심 대신 사유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주체적인 인간을 높인다. 그런 능동적 인간이 자연에 맞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업이나 목축 대신 상공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 차별이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었다.

상업과 공업의 상승 작용과 동반 발전 속에서 근대적인 기업(企業)이 출현했다. 상업 활동을 통해 번 돈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공장은 유지되지 않는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것은 사고파는 상업 행위의 결정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포스코를 포함해서 오늘날 전 세계 기업들은 예외 없이 상업과 공업의 순환적 연쇄 속에서 존재한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다. 기업인은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이다. 기업의 출현과 함께 흔히 “부르조아”라 불리는 상공인 즉 기업인이 근대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늘 천시되던 상공인이 고대의 무사, 중세의 성직자, 혹은 중국의 만다린이나 조선의 양반과 같은 재래의 귀족을 제쳐버린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신분사회가 붕괴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는 오직 이윤추구 활동으로서의 상업의 자유가 허용되고 상공인에 의해 주도되는 시민사회뿐이다. 고대 민주주의의 전범을 보여준 아테네는 해외무역으로 번성한 상업도시였다. 근대 민주주의 역시 상공업과 함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공업이 발전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불가피하다. 빈부격차가 전혀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억지로 그런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상공업의 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활력은 줄어들고 다시 전근대사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억압적인 신분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니체는 “착취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말한 바 있다. 착취가 어느 정도는 허용되어야 사회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4. 근대국가와 일본의 근대화

근대에 들어와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상공인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형성하고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대국가(modern state)를 세우게 된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 불렀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이 최초로 그 모델을 보여준 근대국가란 이기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느라 뿔뿔이 흩어지려는 성향의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질서를 부여하는 중심이다. 시민사회가 원(圓)이라면 근대국가는 그 원의 중심이다. 시민사회의 힘이 원심력(遠心力)이라면 근대국가의 힘은 구심력(求心力)이다.

근대국가는 시민사회와 다른 차원에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같은 차원에 존재한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경제생활 중심의 매우 세속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다. 경제생활이 공적 영역에 들어온 것은 근대에 와서일 일이다. Hannah Arendt, Human Conditions.

근대국가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여 사적 영역으로 넘긴다. 근대국가만큼 세속적인 국가는 예전엔 있지 않았다. 예컨대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혹은 대한민국과 같은 근대국가의 모습을 고대 회람이나 로마라든가 조선이나 고려와 같은 국가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 근대국가는 상공업과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종교적 후광에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업이나 목축에 기반을 두고 종교와 밀착해 있는 전근대 시대 각종 형태의 국가와는 성질이 달라도 크게 다르다.

전근대 시대의 국가는 대개 종교적 신성(神性)과 왕권(王權)을 오버랩시키면서 백성을 하나로 끌어 모았다. 종교는 전근대시대 국가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반면 근대국가는 철저히 세속화된다. 종교는 개인의 사적 선택에 맡겨진다. 근대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바로 그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법치(法治)를 실시한다. 법치를 시행하는 주체는 관료다. 시민사회 내부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관료 즉 공무원이야말로 근대국가의 실질적 중심이다. 관료에는 내부의 적에 대처하는 경찰과 외부의 적에 대처하는 군대도 포함된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논리적으로는 상호 모순적일 수

있다. 법은 인민의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법치는 반드시 같이 간다. 관료의 법치가 결여된 민주주의는 한낱 혼란에 불과하다.

하나의 교회와 라틴어라는 공용어에 의해 묶여진 중세적 보편질서가 와해되면서 등장한 유럽의 근대국가는 민족 단위인 경우가 많았다. 민족 단위로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우리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 부른다. “네이션(nation)”이란 말은 국가로도, 민족으로도 번역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가와 민족”이란 말은 유럽 근대의 내셔널리즘 운동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은 자연과 혈연으로 묶여 있고 언어와 역사를 같이 하므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 바로 이 정서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중세적 보편질서 하에서는 그다지 강조될 필요가 없었던 애국주의(patriotism)가 강력하게 대두한다. 애국주의는 합리적 계산 이전의 자연발생적인 감정에 근거한다. 바로 이 감정이 근대 민족국가의 정서적 기초를 형성하면서 예전에 국가통합을 위해 종교가 하던 역할을 대신한다.

근대 민족국가는 상공업의 동반 발전에 힘입어 경제력을 발전시키고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까지 발전시킴으로써 부국강병(富國強兵)에 성공했다.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들은 대내적으로는 부유하고 대외적으로는 강력했다. 근대 민족국가들은 더 많은 영토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애국주의까지 덧붙여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립, 갈등, 투쟁은 전에 없이 첨예해지고 마침내 대규모 전쟁까지 빈발하게 되었다. 부국강병에 성공한 서구 열강은 다른 한편 그 힘을 해외 식민지 개척에 돌리게 된다. 그 힘이 중남미와 인도 및 아프리카를 거쳐 19 세기 중엽에는 동아시아까지 온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이 덮치자 동아시아 제국(諸國)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었지만, 일본은 중국과 대처 방식이 달랐다. 일본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유교 국가였던 적이 없고 긴 세월 동안 무사계층에 의해 지배되어온 일본의 정신적 전통이었다. 오백년 동안 양반 족에 의해 지배된 철저한 유교국가 조선과는 백팔십도로 달랐다. 사무라이와 선비의 차이가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운명을 갈라놓았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서구 열강에 저항하기보다 그들의 근대화를 배움으로써 부국강병의 길을 걸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비(非)백인 국가로는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1868 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세계사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만, 일본의 역사를 알고 보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7 세기 에도 시대 초기부터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이미 근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시대 유럽에 비해 결코 뒤진 나라가 아니었다. 명치유신 이전 일본에 들어온 서구 외교관들은 일본사회의 풍요와 질서 및 위생상태에 놀라움을 표했다. 하지만 일본은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알지 못해 과학기술문명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뒤져 있었고, 그 결과 군사력이 서구 열강에 미칠 수가 없었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그 주체는 명치유신을 통해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중앙집권화에 성공한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다. 중앙집권적 명치정부의 수립은 근대화의 중심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선비들과는 달리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국가의식이 강렬했다. 사무라이들의 국가의식은 주군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무사도에서 나온다. 주군은 국가를 대표할 뿐, 국가 자체는 아니지만, 둘 다 지금 이곳 욕망의 세계에 속하고 권력의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에 권력의 중심도 필요하고, 국가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주군도 필요하다. 욕망을 긍정하고 권력의 필요성을 긍정한다면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국가의식으로 이전될 수 있다.

5.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박태준의 실용주의적 애국

오늘날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 단위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들 것이다. 박태준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을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에게 대한민국과 포항제철은 신성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그는 “영원한 조국”이라 불렀다. 하지만 신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국가와 기업이 과연 순교자적 희생을 바쳐야 할 만큼 신성한 어떤 것일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라고는 없다. 천지만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 국가와 기업은 수명에 있어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천지만물과 마찬가지로 생겨났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현상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와 기업은 둘 다 인류보편적인 숭고한 이상이 아니라 특수한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국가는 전쟁이 그 본질인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최우선시하는 하는 공적 조직이다. 반면 기업은 이기심이 소용돌이치는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조직이다. 국가와 기업은 이처럼 존립목적에 있어서 공사(公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둘 다 자기보존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소유론적 욕망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인위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0 세기 이후 이 땅에 도입된 세속적인 근대국가와 영리추구의 기업은 둘 다 인간의 소유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것들은 맹자식으로 말하자면 王道가 아니라 霸道 즉 富國強兵의 길에 속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은 종교적 숭배와 헌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박태준은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과 자신이 세우고 운영한 기업 포항제철에 대해 “순교자적 사명감”으로 임했다. 그에겐 조국이 하느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숭배와 헌신의 대상이었고, “제철보국”은 조국이 그에게 맡긴 신성한 종교적 사명이었다.

그는 언제나 “국가는 곧 철(鐵)”이고, “내 인생의 상징은 ‘철’ 한 글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투철한 “순교자적 사명감”과 자기희생적 헌신 속에서 그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포항제철과 일체화된다. 이 같은 일체화 속에서 ‘박태준’이라는 사적 개인은 무(無)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과 포항제철이 들어선다. 박태준에게서 우리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태준이 포항제철을 세웠다”는 진술은 정확하지 않다. 포항제철을 세운 당시 박태준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을 세운 것은 박태준이 아니라 무(無)였던 것이다. 이 말은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서 밝혀질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경우, 적어도 국가와 기업은 신이 되고 교회가 된다. 애당초 신성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건 아무리 하잘 것 없다 해도 누군가가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게 되면 어느덧 신성한 위광을 발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신성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박태준은 세상의 수많은 사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국가와 기업을 위해 “순교자적 사명감”을 불태우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강대국들에 짓밟혀 함석헌의 말대로 “시궁창에 빠진 국제창녀”와도 같았던, 19 세기말 이래 우리의 비참한 현대사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오백년 조선조는 국력이 다 고갈된 나머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식민지 해방은 남북분단의 비극을 낳았고,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은 좌우 대립의 격화 속에서 마침내 전쟁의 참화를 낳았다. 조선조에서 식민지로 이어지고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인과관계의 최종 귀결은 50 년대와 60 년대에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처참한 빈곤이었다. 60 년대초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헐벗고 굶주리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종합하는 마지막 장이었다면 빈곤 극복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전체를 극복하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몸을 가진 인간이란 소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앞에서 말했다. 빈곤은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집이 부족하거나 없는 소유의 결여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인들은 평생토록 소유론적 욕망에 사로잡혀 먹고 입고 잠자기 위해 산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절대빈곤의 상황에서는 먹고사는 일 이외의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먼저 빈곤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식민지 극복으로서의 해방도,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도, 전쟁 극복으로서의 평화도 헛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혁명이 별 건가.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 모양으로 굶주리고 헐벗어서야 무슨 재주로 사람답게 살겠나. 우리는 목숨 걸고 경제를 일으켜야 돼” 박태준, 「씻물은 멈추지 않는다(10)」.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을 박태준이 보았다고 한다.

“도둑맞은 빈집”처럼 황폐해진 나라를 두 어깨에 짊어진 젊은 지도자 박정희는 고뇌했을 것이다. 박정희가 자유나 민주 혹은 평등과 같은 추상적 이념을 다 제쳐둔 채 경제제일주의로 나아간 것은 불가피했다. 절대빈곤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동운명 속에서 그 극복의 가능성을 찾는다면 “경제제일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박태준 역시 경제문제의 최우선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에 “제철보국”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 자체가 바로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는 실질적 과정이기도 했다. 근대세계는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화로 만성적 빈곤을 극복해왔는데, 산업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국가에서는 국가 자신 외에는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를 추진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 일본처럼 국가가 경제개발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자꾸 강력해지게 됨으로써 국가는 마침내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재발을 막는 최종 보루의 역할도 하게 된다.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은 모두 강력한 국가의 부재(不在)로 인한 비극이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국가를 민주와 정의와 도덕의 이름으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강력한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발국가에 대해서는 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강의』(생각의 나무, 2005) 참조.

는 대내적으로는 빈곤 극복을 위한 경제개발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분단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주체로서 기능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박정희 시대의 구호는 경제와 안보, 부국(富國)과 강병(強兵)을 동시에 챙기는 국가의 이중적 기능을 잘 말해준다.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가 중심이 되어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은 맹자의 눈으로 보면 패도(霸道)에 속한다. 국가와 기업과 군대는 도덕적 선도 아니고 사회적 정의도 아니다. 조선조 이래 늘 그랬듯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패도보다 왕도를 높이고 부국강병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분단국가의 비애를 씻고자 한다면 도대체 부국강병의 패도 외에 무슨 대안이 있는가? 역사현실의 내적 논리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강대국의 부국강병과 약소국의 부국강병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극복을 염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국강병을 자신의 신성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박태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빼앗긴 국가, 부서진 국가, 절대빈곤의 국가에서 살아온 박태준의 영혼에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고했다.” 이대환, 앞의 책, p.301.

이 확고한 믿음이 그를 부국강병으로 몰아갔다. 부국강병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박태준의 결단은 이미 그의 청년시절에 다져진다. 해방 전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성장한 그는 민족의 힘을 키우려면 공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와세다 대학 공대에 들어갔고, 해방 후 좌익세력으로 인한 사회혼란은 목도하고는 強軍 육성이 급선무란 판단에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된다. 『新種離散家族』, p.31; 이대환, 앞의 책, p.66 참조.

부국강병을 향한 청년시절 그의 결단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그 극복의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6.25 때엔 3년 내내 전선을 누비게 되고, 박정희를 따라 5.16 혁명에 참여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뒤집어엎게 되고, 그 후 박정희의 지시로 포항제철 건설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게 된다. 군인과 기업인으로서 박태준이 걸어간 부국강병의 길은 다름 아니라 박정희가 걸어간 “조국근대화”라는 이름의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이었다.

실용주의적 애국은 현실과 이상을 둘로 나누고 이상을 현실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상주의적 애국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이상주의적 애국은 이 땅의 구체적 생존현실보다 추상적 보편이념을 앞세우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이 명분에만 끌려 다닐 위험이 있다.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같은 근대적 이념이 일제강점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을 막론하고 이상주의적 애국자들이 흔히 동원해온 명분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념 노선은 우익의 민족주의와 좌익의 공산주의로 대별된다. 둘 다 민족의 구체적 현실보다는 추상적 이념에 더 치중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이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보다 더 이상주의적인 것은 일체의 강압을 거부하는 신채호, 이회영 등의 무정부주의였다. 해방 이후가 되면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보편적 정치이념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민족주의(nationalism), 공산주의(communism), 무정부주의(anarchism), 민주주의(democracy) 따위는 모두 自生的 理念이 아니라 서양근대로부터 수입된 이념들이다. 그런 수입 이념들이 이 땅의 구체적 현실보다 우선시되는 한, 강력한 국가와 효율적 기업을 중심으로 민족의 힘을 길러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려는 富國強兵의 祖國近代化 노선, 다시 말해 ‘실용주의적 애국 노선’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는 데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舶來의 수입 명분을 도덕적 당위로까지 치켜세우면서 거기에만 전력투구할 경우,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생존현실보다 실현불가능의 추상적 이념을 우선시하는 이상주의적 애국의 한계점이다.

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이상주의적 애국은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느라 결국 일어서지 못한다. 새 역사의 창조는 낡은 역사를 수락하는 동시에 거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이상주의적 애국은 도덕적 명분에 따라 낡은 역사를 송두리째 거부하고 새 역사 창조에만 급급해 한다. 그러다보면 생존현실보다 추상적 이념을 우선시하는 원리주의적 조급증에 사로잡히기 쉽다. 원리주의적 조급증은 추상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폭력까지 불사할 수 있다.

반면 박정희와 박태준의 실용주의적 애국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비극적 현실은 밝은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선(善)이 아니라 악(惡)이다. 그것은 또한 존재론적으로는 진리가 아니라 비(非)진리이다. 하지만 밤과 낮은 서로 맞물려 순환하므로 밤을 통하지 않고는 낮이 오지 않는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진리 아닌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먼저 비극적 현실을 긍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 실용주의적 애국은 과거로부터 주어진 비극적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락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이상주의와 다르고, 그 비극적 현실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속물적 현실주의와 다르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국가의 중요성과 그 국가를 받쳐주는 두 기둥 즉 군대와 기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국가와 군대와 기업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 자체 안에 비극 극복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실 자체가 국가와 군대와 기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 가능성을 드러내어 현실화하는 과정이 곧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 과정의 고비마다 비극적 현실 속으로 자신을 던지면서 비극의 극복을 주도했던 영웅들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박태준 역시 그런 영웅들 가운데 한 명이다. 뛰어난 영웅들의 활약을 무시하고는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영웅숭배를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미신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 학문풍토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사회과학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보다 개인을 앞세우는 영웅사관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을 무(無)로 돌리는 결사의 각오로 비극적 현실에 과감하게 맞서는 영웅의 본질에 대해서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결사의 각오야말로 영웅적 성취를 가능케 해주는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다.

6. 주자학에서 실용주의로의 정신사적 전환과 박태준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실은 어두운 밤이고 도덕적 악이다. 부국강병을 향한 실용주의적 애국은 비극적 현실을 운명으로 긍정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과 도덕적 악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한다. 때로는 그것들과 타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실용주의적 애국은 속물적 현실주의와 한 통속이다. 결사의 각오 속에서 자신을 무(無)로 돌릴 때 선과 악, 의와 불의의 분별마저 초극된다. 하지만 도덕주의자에게 초극은 타락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타협을 모르는 이상주의적 애국만 참된 애국이라 여기는 도덕주의적 편견이 강하다. 이 편견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조 이래 주자학적 전통에 닿게 된다. 부국강병을 위한 젊은 시절 박태준의 결단은 주자학적 전통과의 단절을 알리는 동시에 근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정신사적 전환의 한 징표로 읽혀질 수 있다.

조선조는 “주자학의 왕국”이라 불려도 좋을 정도로 주자학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의 이념과 그 현실』,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한도현 외, 청계, 2007) 참조.

주자학은 순자 류의 인간주의적 유학이 아닌 맹자 류의 자연주의적 유학이다. 인간주의적 유학은 인간의 작위에서 도덕적 선을 찾는 반면, 자연주의적 유학은 無爲自然에서 도덕적 선을 찾는다. ‘무위자연이 곧 도덕적 선’이라는 이른바 ‘자연도덕주의’는 주자학의 근원적 믿음이고, 理 한 글자는 이 믿음을 대표한다.

주자학의 자연도덕주의는 무위의 자연세계를 유위(有爲)의 인간세계보다 더 높이는 자연중심주의로 미끄러진다. 마음 안팎이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세계는 내면세계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연중심주의는 내면중심주의와 다르지 않다. 조선조 주자학자들은 마음 밖 인간세계로 진취(進取)하기보다는 자연세계 혹은 내면세계로 퇴행(退行)하기를 더 좋아했다. 예컨대 이황은 자신의 호까지 퇴계(退溪)라고 지었다.

자연중심, 내면중심의 주자학 이념이 권력 그 자체가 되면, 욕망하고 의지하고 활동하는 능동적 인간은 억압을 당한다. 인간의 작위는 유교적 가치의 실천에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인육 내지 패도로 치부된다. 능동적 인간이 억압을 당하면 이익추구를 위한 상공업도, 온갖 욕망이 들끓는 도시도, 공적 영역으로서의 국가도 출현할 수 없게 된다. 상공업과 도시와 국가가 발달하지 못한 종족 단위의 목가적 농촌사회에서 문명과 역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조선조야말로 헤겔의 말하는 “지속의 왕국(Reich der Dauer)”이었다. 조선조가 만성적 빈곤과 정치적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근대화된 일본에 의해 와해된 것은 사세(事勢)의 필연이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운명은 조선조 주자학의 전통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 비극적 운명의 사실성을 수락하는 동시에 단호하게 거부한다면, 박태준처럼 조선조 주자학의 전통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무위자연 대신 유위(有爲) 혹은 작위(作爲)를 고취하게 된다.

박태준은 “고려 때까지는 국민기상이 씩씩하고 진취적이었으며 모든 문물이 우람하고 건전”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부패와 당쟁이 심해지고 “생산에 종사하는 계급을 철저히 천시한” 결과, “기어코 나라를 빼앗겼다”고 개탄한다. 박태준, 『나의 경영철학』, pp.104-105 참조.

그는 “이조역사가 남긴 유산”을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태어났다”고 외친다. 박태준, 위의 책, p.95.

그가 지적하는 조선조의 부정적 유산 가운데 핵심은 무위자연을 숭상하는 주자학적 전통이다. “일을 하기 위해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위자연과는 정반대의 유위작위가 우리의 신성한 사명이라는 뜻이다.

박태준의 역사관은 박정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박정희는 우리 역사를 “退嬰과 粗雜과 沈滯의 連鎖史”로 보면서 특히 조선시대를 부정적으로 본다. 박정희는 “중세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비교적 활발하고 남성적인 기질이 있었으나 이조에 들어오면서 점차 그 기상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불교에서 유교로 문물의 제도가 바뀔에 따라 민족 자주적인 성품을 좀먹게 되었다”고 통탄하다. 박정희는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리고” “대담한 새 출발”을 하자고 외친다. 朴正熙, 『國家와 革命과 나』, 고려서적주식회사, 1965, pp.187-188 참조.

박태준이 조선조에서는 천시 받던 군인과 상공인이 되어 부국강병에 매진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내면이 아니라 외부를, 무위가 아니라 유위를 선택하여, 욕망하고 의지하고 활동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것은 또한 왕도가 아니라 패도를, 문(文)이 아니라 무(武)를, 의(義)가 아니라 이(利)를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종족과 향촌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자학자들이 몰랐던 사회와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주자학의 왕국” 조선조의 주자학적 전통을 돌파하고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면서 조국근대화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태준의 성취 가운데 최대의 것은 포항제철이다. 그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포항제철은 그 압도적 위용부터 조선조의 위축된 분위기를 멀리 벗어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포항제철의 엄청난 외적 규모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장된 진취적인 창업정신이다. 포항제철의 창업정신은 사회적 차원의 사명의식(희생정신, 책임의식, 공인정신), 조직적 차원의 협동정신(공동체정신, 자주정신, 규율정신), 개인적 차원의 도전의식(개척정신, 창조정신, 장인정신)으로 요약된다. 『창업정신과 경영철학』의 目次 참조.

사명의식은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집약되고, 협동정신은 군인정신과 다르지 않고, 도전의식은 기업가정신의 핵을 이룬다. 이렇게 풀어보면 사명의식을 필두로 협동정신과 도전의식을 제시하는 포항제철의 창업정신 속에는, 국가(사회 차원의 사명의식)를 위해 군대(조직 차원의 협동정신)와 기업(개인 차원의 도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대한민국의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포항제철의 진취적인 창업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겐 평범하게 들린다. 하지만 주자학의 전통과 대비해보면 충격적으로 새롭다. 사명, 희생, 개척, 창조, 자주, 규율, 도전 따위의 말들은 조선조 주자학의 전통에는 없던 말들이다. 그 말들 하나하나에는 자연과 내면으로 퇴행하던 수동적 인간과는 정반대로 바깥의 인간세계로 진취하는 능동적 인간, 종족과 향촌사회에 안주하던 유교적 인간과는 정반대로 국가와 기업을 만드는 근대적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미래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분투노력하는 주체적 인간의 자기 다짐이 포항제철의 창업정신 속에 압축되어 있다. 포항제철의 진취적인 창업정신은 조선조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정치사적 격변과 맞물려 일어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정신사적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조선조 내부에도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정신사적 전환을 열망하던 선구적 학자들이 더러 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최한기 등 이른바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사상은 대체로 무위보다 유위를 숭상하고 자연보다 인간을 숭상한다. 그들은 이론적 차원에서나마 욕망하고 의지하고 활동하는 인간을 긍정하고, 도덕적 이상주의를 완화하는 대신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다. 그들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정신사적 전환을 예비한 공로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산업화된 근대민주국가를 꿈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태준과 그들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과 같은 영웅들도 그들과 거리가 멀다. 이것은 조선조와 대한민국 사이에 정신사적 단절이 그만큼 크다는 증좌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주자학에 반대하더라도 효제와 삼강오륜의 진리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음으로써 유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했다. 오히려 유교윤리에 더 집착하는 경향마저 있다. 예컨대 성호 이익에서 다산 정약용에 이르는 남인 실학자들은 유교윤리에 대해 노론 주자학자들보다 더 교조적이다. 유교의 가부장적 가족윤리를 절대시하는 한, 국가와 기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는 어렵다. 그것은 불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학자들은 조선의 개혁을 위해 목숨 걸고 일어서기는커녕 탁상공론만 일삼는 책상물림에 그쳤다. 이것은 주목을 요하는 조선후기 실학의 한계점이다.

실학자들과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태준을 실학의 계승자로 볼 수는 없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그는 유교의 울타리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실학자들과는 달리

가족이나 종족보다도 자신의 조국을 더 사랑했다. “자신은 나라에 바친 몸”이라는 신훈 첫날밤의 선언은 종족중심의 유교전통과의 결별 없이는 불가능하다. 둘째, 그는 책상물림에 그친 실학자들과는 달리 절체절명의 민족사적 위기에 목숨 걸고 부국강병에 매진했다. 그는 말만 하는 서재의 학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전장의 군인이자 시장의 기업인이었다.

박태준은 유교의 울타리를 벗어났기에 군인과 기업인이 되어 결사의 각오로 부국강병에 매진할 수 있었던 반면, 실학자들은 인간세계로 향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윤리에 얽매어 결사의 각오가 불가능했기에 인간세계로 멀리 가지 못했다.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조선사회의 비극적 현실 속으로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 없는데, 유교윤리가 실학자들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결사의 각오가 없다는 것은 무를 모른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주자학의 무위자연을 철저히 부정하고 유위작위만 숭상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비극적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현실의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어렵다.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는 실학자들보다는 결사의 각오로 유위작위에 몰두하는 박태준이 훨씬 더 실학적이다.

박태준은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우리 시대의 많은 영웅들과 함께 조선조의 대척점에 서있다. 그들은 주자학의 전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실학의 전통과도 차이가 매우 크다. 현실적 실용주의자로서 그들이 자기 시대의 어두운 밤과 목숨 걸고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조를 지배한 유교윤리의 한계를 넘어 주자학과 실학이 몰랐던 무(無)를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서재의 학자가 아니라 현장의 행동인이므로 무에 대해 말한 적이 전혀 없다. 하지만 무는 학자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는 성자처럼 무위의 자연세계로 퇴행하건 아니면 영웅처럼 유위의 인간세계로 진취하건 언제나 목숨 걸고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7. 우리 현대사의 부름에 대한 박태준의 응답

조선조 주자학의 전통과 문약(文弱)으로 인해 벌어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박태준은, 한편으로는 비극적 현실에 안주하여 이익을 탐하는 세상사람들의 현실주의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는 정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보편이념의 실현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이상주의도 멀리 하면서, 속물적 현실주의와 공허한 이상주의의 대립을 넘어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을 걸었다.

실용주의적 애국은 비극적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운명으로 긍정하고, 그 안에서 비극 극복의 가능성을 찾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애국이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 자신이 스스로 강력한 국가를 자기 극복의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와 효율적인 기업이 필요하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자체가 우리에게 힘없고 가난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부강하게 만들라고,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라고 소리 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부름에 박태준은 군인과 기업인이 되어 응답한다. 부름을 듣고 거기에 응답한다는 것은 곧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운명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비극 극복의 과업에 자신을 던지리라 결단한다는 뜻이다.

부국강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세상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현대사의 부름에 박태준처럼 응답하지는 않았다. 이 비극의 땅에 태어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들의 무응답을 굳이 나무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왜 박태준은 젊은 시절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일까. 물론 명예나 이익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이 물음은 그의 개인사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용주의적 애국과 정신적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묻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자신의 부모에 의해 태어나 이 세계 속에 던져진다.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운명이다. 박태준이 대한민국이라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이다. 운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이 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속한다. 과거의 모든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은 자신의 과거의 사실 즉 자신의 운명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언가를 기획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미래를 위한 인간의 모든 기획은 운명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그의 자유에 속한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미래적 기획은 반드시 과거의 사실 즉 운명을 수락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운명을 수락하지 않고는 자유가 없고, 과거를 수락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와 미래, 운명과 자유, 수동과 능동 사이에 있다.

세계에 던져져 있다고 할 때의 그 세계는 변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이 세계에는 자연세계도 있고, 인간세계도 있다. 이 변화하는 세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변화에 불안을 느껴 불변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할 것이다. 전자가 도덕적 이상주의이고, 후자가 속물적 현실주의자이다. 박태준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도덕적

이상주의로 가지도 않았고 속물적 현실주의자가 되지도 않았다. 그는 과거의 사실 즉 자신의 운명을 주어진 대로 다 수락하면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기획을 했다.

“참된 영웅은 세계의 무게를 아틀라스처럼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짊어지고자 하는 세계의 무게 즉 과거적 사실로서의 운명은 미래의 기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과거적 사실로서의 운명은 그 인간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미래적 기획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적 사실로서의 운명이 인간에게 미래의 특정 방향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을 하이데거의 말을 빌어 “양심의 부름”이라 부를 수 있다.

양심의 부름은 과거적 사실로서의 운명에서부터 오고 있다. 양심의 부름은 과거와 미래, 운명과 자유에 모두 관계된다. 양심의 부름에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없고, 특정 인간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그때그때 바뀐다. 그 부름은 성자의 길로 가라는 부름일 수도 있고, 영웅의 길로 가라는 부름일 수도 있다. 이런 양심의 부름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결단(Entschlossenheit)”이다.

박태준은 왜 온갖 비극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부국강병에 매진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는가? 왜 성자의 길이 아니라 영웅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가? 박태준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 속으로 던져졌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그의 운명이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이라는 비극 속에 던져져 있으면 누구라도 불안에 휩싸이고 “고향상실”의 느낌이 강렬해지지 않을 수 없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고, 좌우가 갈라져 원수가 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험벗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의 그 스산한 느낌으로부터 양심의 소리가 발신되어 박태준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 소리는 물론 박태준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봐도 된다. 그 스산한 느낌을 느낀 사람도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싸구려 위안을 찾아 도피하는 세상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낯설게 들릴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진 보통의 세상사람이므로 박태준에게도 양심의 부름은 낯선 소리였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 부름은 그가 세상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분출했는지도 모른다. 양심의 부름은 그에게 마치 십자가를 지라는 것처럼 들리는 괴로운 부름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내 개인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으며, 한시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지 못했다” 『나의 경영철학』, p.94. 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준은 양심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락하면서 비극의 극복을 위해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명예나 이익 때문도 물론 아니거니와, 그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무슨 원인을 제공한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란 본래 이 세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동료 인간에 대한 값싼 동정 따위와는 무관하다. 인간이란 본래적으로, 근원적으로 자기 시대의 비극에 대해 책임지도록 운명지워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는 박태준의 얼굴에서, 허황한 이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이상주의자들과는 달리 입을 꼭 다물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 속 가장 깊은 데 자리 잡은 근원적 책임의식에서 분출하는 양심의 부름에 따라, 자기 시대의 비극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자 과감하게 자신을 던지는 비장한 결단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온 박태준 역시 젊은 시절 이래 인생의 고비마다 비장한 결단의 순간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이다. 그가 경험했던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 그에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대립을 넘어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실용주의적 애국에는 부정성으로 가득 찬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 즉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실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수적이다. 실용주의적 애국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용주의적 애국은 비장하게 결단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결단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 운명과 자유, 수동과 능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 충돌 속에서 인간은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을 외면하거나 방기하지 않고 그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그것과 투쟁을 전개한다. 만약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과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이 不二의 관계로 길항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대립을 넘어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는 그런 결단의 순간을 알지 못한다.

현실주의자는 “일상적 관심”에 빠져 목전의 주위세계에 대한 이해타산에 분주하기 때문에,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도 망각하고,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도 망각한다. 현실주의자는 피투성의 비극적 현실 앞에서는 도피를 일삼고, 다른 한편 비극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할 용기는 없다. 현실주의자의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현재중심의 현실주의자에게 결단은 남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주의자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상사람(das Man)이다.

반면 이상주의자는 이해타산에 분주한 일상적 관심을 월등히 초월해 있다. 이상주의자는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에는 개의치 않고,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에만 집착한다. 이상주의자의 시간은 운명적

과거도 아니고 소유적 현재도 아닌 유토피아적 미래에 있다. 하지만 보편적 이상은 운명의 사실성과 자유의 가능성이 교직된 현존재의 존재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발명한 것이거나 아니면 책에서 배운 것에 불과하다. 이상주의자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면 할수록 구체적 현실로부터 더욱 유리되어 발이 허공에 떠버릴 위험이 있다.

속물적 현실주의자도, 공허한 이상주의자도 과거와 미래, 운명과 자유, 사실성과 가능성이 불일불이의 관계로 교직되는 저 비장한 결단의 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태준이 걸어갔던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도 알지 못한다. 실용주의적 애국의 길은, 현실주의자에게는 남의 일에 불과하고, 이상주의자에게는 현실주의자가 걷는 속물의 길과 같아 보인다. 속물적 현실주의자 아니면 공허한 이상주의자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박태준의 실용주의적 애국은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8. 결사의 각오로 다져진 사명감 혹은 “선구적 결단,” 그리고 무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이 곧 결단이다. 인간은 본래 양심의 부름에 따라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을 짚어지고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뒤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 결단이 사명감을 낳는다. 사명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다. 사명감은 결단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예컨대 내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면 조국에 대한 사명감이 생긴다. 먼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명감은 없다. 결단이 전제되지 아니한 사명감은 강요된 의무감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명감이 무엇인지 해명할 수 있다. 결단을 할 때는 미래를 향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마련이다. 목표가 설정되면 결단하는 자는 그 목표에 대해 귀속감이나 책임감 혹은 의무감을 갖게 된다. 사명감이란 그 목표에 대해 “결단하는 자”가 갖는 귀속감, 책임감, 의무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목표는 신일 수도 있고, 국가나 기업일 수도 있다.

양심의 부름이 결단을 부르고, 결단이 사명감을 부른다. 그런데 결단이나 사명감 모두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단도 사명감도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결단은 인간을 곧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데려간다. 결단이 불러온 사명감 역시 목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결단과 사명감만으로는 행동에 필요한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결단을 한다고 해서, 사명감을 갖는다고 해서 저절로 난관이 돌파되고 사명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행동하려면 난관을 뚫어낼 힘이 필요하다. 말은 필요 없다. 말 많은 이상주의는 더욱 필요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사의 각오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야 온갖 난관을 뚫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사명감이 아무리 강해도 결사의 각오가 없으면 사명감은 주관적 의지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할 뿐이다. 결사의 각오로 다져질 때 사명감은 사명 완수를 위한 행동력을 가질 수 있다. 결사의 각오로 다져지고 또 다져진 사명감, 그것이 곧 박태준이 말하는 “순교자적 사명감”이다. 순교자적 사명감은 사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군인은 조국을 위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이다. 결사의 각오는 군인정신의 핵이다. 박태준은 군인으로서 실용주의적 애국활동을 시작하고, 군복을 벗은 다음에도 군인정신을 버린 적이 없다. 그는 중대한 고비마다 “목숨을 건다”는 말로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진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의 “우향우정신”이 대표적이다. 박태준은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 자신의 사명감을 순교자적 사명감으로 승화시키는 전범을 보여주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 이 좌우명이 보여주는 순교자적 사명감이 그의 모든 사명 완수를 가능하게 해준 힘의 원천이다.

국가와 기업은 죽음 저편이 아니라 삶 이편에 있는데, 결사의 각오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다시 말해 자신을 무(無)로 돌리겠다는 각오이다. 살아있어야 애국활동도 가능하고 기업활동도 가능할 터인데, 결사의 각오는 서둘러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도 결사의 각오를 다지면 사명 완수의 힘이 생긴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삶과 죽음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결사의 각오가 거꾸로 삶을 향해 달려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가. 삶이 유(有)라면 죽음은 (無)인데, 무로 돌아감이 유로 나아감을 낳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죽음을 향한 결사의 각오가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한 각오가 되는가. 왜 죽고자 해야 사는가.

이 문제의식은 박태준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죽음은 삶의 무상을 깨닫고 삶을 초탈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 동시에 저 무상한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의 원천도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성자적 해석도 가능하고, 영웅적 해석도 가능하다. 하이데거의 생각에 의지해보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Sein zum Tode)”라고 말한다. 죽음이 인간의 종말에 있는 먼 목표라는 뜻이 아니다. “죽음은 현존재(인간)가 존재하자마자 떠맡아야 하는 존재방식이다. 한 인간이 삶을 얻자마자 그는 충분히 죽을만한 나이에 이르렀다.” Sein und Zeit, p.245.

삶의 과정이 곧 죽음의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존재(인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하이데거는 “나는 오직 죽어감 속에서만 ‘나는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M. Haar, Heidegger and the Essence of Man, p.6 에서 재인용.

고도 말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던져져 있는 삶의 비극적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 그 죽음을 자유와 삶의 원천으로 역전시킨다. 그 계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Vorlaufen zum Tode)”이다. 죽음의 면전에서 세상사람들처럼 도피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과감하게 달려갈 때, 죽음은 비극적 운명이기를 멈추고 도리어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물론 죽음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 자살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삶의 비극적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여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감”이란 결사의 각오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 죽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진다. “죽음 앞에서의 자유(Freiheit für den Tod)”는 잡다한 우연적 가능성들을 몰라내고 현존재를 “그의 운명의 단순성으로 데려간다.” 그 자유는 물론 유한하지만 현존재는 “자신의 유한한 자유의 초강력한 힘(Übermacht)”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를 이해하고, 우연한 것들에 대해 눈이 밝아지게 된다. Sein und Zeit, p.384 참조.

죽음을 향해 달려감 즉 결사의 각오가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운명의 단순성”으로 데려가고, 또 강력한 힘과 자기 이해와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결사의 각오를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행위는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시해 일체의 소유를 포기해야 죽음을 각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호라도 소유욕이 남아있다면 죽음을 각오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일체의 소유욕에서 벗어나 티끌 한 점 없이 맑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무아(無我)이고, 무사(無私)이고, 무심(無心)이고, 무욕(無欲)이다. 간단히 말해 무(無)인 것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감을 통해 얻어진 무는 유(有)의 전적인 부정인 것도 아니고, 죽음보다 더한 죽음인 것도 아니다. 정반대로 그것은 모든 유가 새로 창조되는 원천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새 삶의 원천이다. 노자는 “유는 무로부터 나온다(有生於無)”고 한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무로부터 자유와 자기 이해와 초강력한 힘과 통찰력이 나온다고 한다.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감을 통해 얻어진 무는 유와 구별되는 명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와 가능성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는 동사적인 힘이다. 무의 힘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하나는 주어진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성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운명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동성의 힘이다. 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을 동시에 보여준다. 수동성의 힘은 성자 혹은 어린아이의 힘이고, 능동성의 힘은 영웅의 힘이다. 니체의 초인은 이 두 가지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인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캐사르”라는 니체의 말은 초인의 이중성을 알려준다. 초인이 가진 이중적 힘의 근저에는 무가 있을 것이다.

현존재가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와 결합하여 “선구적 결단(die vorlaufende Entschlossenheit)”이 된다. 선구적 결단만이 본래적인 결단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와 결합하지 않고는 어떤 결단도 본래적일 수 없다. 그것은 현존재가 철저히 죽음으로 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단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와 결합해야 무기력에서 벗어나 충분한 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는 어떤 결단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선구적 결단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와 결합한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발명된 출구도 아니고,” 또한 “세계도피적인 은둔을 의미하지도 않고, 환상 없이 행동의 결단으로 데려간다.” Sein und Zeit, p.310.

환상 없는 행동이란 공허한 이상에 휘둘리지 않는 실용적 행동일 것이다.

선구적 결단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은 난해하고 복잡해서 여기서 다 거론할 수가 없지만, 선구적 결단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결사의 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결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바로 그 점에서 선구적 결단은 박태준이 평생토록 변함없이 간직해온 “순교자적 사명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박태준은 양심의 부름에 따라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서 국가와 기업을 위한 그의 사명감이 나오고, 그의 사명감은 결사의 각오에 의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순교자적 사명감으로 승화되었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을 위한 박태준의 순교자적 사명감을 선구적 결단의 일종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가와 기업을 위하건, 아니면 신을 위하건, 중요한 것은 결단을 한다는 사실 자체다. 하이데거는 무엇을 위해 결단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고, 결단의 존재론적 구조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결단은 세상사람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단독화시키면서 본래적 자기로 향한다. 결단의 본래성에 해당하는 선구적 결단은 “가장

고유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본래적 자기로 향한다. 그러므로 결단은 늘 다른 사람들과로부터 벗어나는 단독화의 고독과 함께 간다. 국가와 기업을 위한 결단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위한 것이건 결단의 순간에는 늘 철저하게 혼자다. 국가와 기업을 위해 결단을 할 때에도 그 본질적 구조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국가와 기업을 위한 선구적 결단이라 해서 선구적 결단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 국가와 기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권장될 수도 있다. 하이데거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지만, 민족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적극 말한다. 선구적 결단은 모든 결단이 그렇듯이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을 근거로 해서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을 향한 기투는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으로 돌아감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을 넘어서 실용주의가 가능해진다.

하이데거는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속물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실용주의는 과거적 운명의 사실성에 매몰된 현실주의와 미래적 자유의 가능성만 희망하는 이상주의 두 극단을 넘어서 입장을 가리킨다.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은 결단과 그 구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실용주의적 결단이 행동화하려면 결사의 각오와 결합하여 선구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속물적 현실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사실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이다. “선구적 결단은 실존과 그 가능성을 뛰어넘는 ‘이상주의적’ 요구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사실적 근본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이해에서 솟아나온다.” Sein und Zeit, p.310.

이상주의에 대한 혐오는 하이데거 철학 전체를 뒤에서 밀어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된다. 속물적 현실주의도 아니고 공허한 이상주의도 아니라면 실용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결사의 각오는 목숨을 위시한 일체의 소유에 대한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결사의 각오를 하는 자는 그 마음이 무아, 무사, 무심, 무욕이어서, 이미 무로 돌아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평생 순교자적 사명감 속에서 살아온 박태준은 어떨까. 그 역시 무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적 개인으로서의 박태준은 그가 자신을 “영원한 조국”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박태준이 무엇을 만들고 세웠다는 식의 진술에 나오는 그 박태준은 누구인가. 그것은 공적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공인일 뿐, 사적 개인으로서의 박태준이 아니다. 박태준처럼 철저하게 滅私奉公하고 나면 사적 개인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에도 없다. 박태준은 자신의 가정마저 거의 버리다시피 하면서 국가와 기업을 위해 헌신했다.

투철한 순교자적 사명감에서 자신의 모든 사적 소유를 버리고 철저히 무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박태준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해준 힘의 원천이다. 무는 수동성의 힘과 능동성의 힘, 어린아이 같은 순진성과 사자 같은 용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무는 무위의 자연세계로 퇴행하는 성자의 길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유위의 인간세계로 진취하는 영웅의 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했다. 두 길의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출발점은 공히 무에 있는 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성자와 사자처럼 용맹한 영웅이 한 뿌리인 것이다. 박태준도 바로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에, 두 가지 상반된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의 포용력은 수동성의 힘이고, 그의 추진력은 능동성의 힘이다.

무위의 자연세계가 아닌 유위의 인간세계 속에서, 그것도 국가와 기업이라는 세속적인 조직을 위해, 순교자적 사명감에 따라 일체의 사적 소유를 버리고, 무로 돌아간 박태준 역시 하이데거가 말하는 “무의 자리지킴이(Platzhalter des Nichts)”라 볼 수 있다. 무의 자리지킴이는 자연세계에 물러나 일 없이 한가한 隱者일 수도 있고, 인간세계로 나아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戰士일 수도 있다. R. Safranski, 앞의 책, p.183 참조.

박태준은 물론 전사 쪽이었다. “그는 평생 전쟁 치듯 살았다.” 이대공,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그리고 제철보국에」, 월간조선, 2011년 1월호, 별책부록.

하지만 은자의 마음과 전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은자에게도 전사의 마음이 있고, 전사에게도 은자의 마음이 있다. 둘 다 무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어느 쪽의 무이건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죽음이 무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다.

젊은 박태준의 애국심과 기백에 한눈에 매료되어 그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일본의 거물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지하 백 척에 묻힐 각오”라는 어느 선배 양명학자의 말을 아주 좋아했다. 大橋健二, 『良心と至誠の精神史: 日本陽明學の近現代』(勉誠出版, 平成 11 年), p.122. 安岡正篤(1898-1983)은 “戰後 보수정부 최대의 사상적 지주”, “역대 수상의 指南役”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鈴木大拙과 함께 동양철학 두 大家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결사의 각오에서 얻어지는 무심과 그 묘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일류의 인물에겐 보통사람의 틀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보통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다면적 변화가 풍부해야 한다. 하늘에 통하는 至誠, 세상을 덮는 기백과 더불어, 우주 그 자체와 같은 寂寞을 그 가슴에 숨기고 있어야 한다.” 安岡正篤, 『陽明學十講』, p.144.

야스오카가 말하는 “우주 그 자체와 같은 적막”은 무를 가리킨다. 가슴에 품은 저 “적막”은 “지하 백척에 묻힐 각오”가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무가 지성을 낳고, 기백을 낳고, 변화를 낳는다. 무가 없으면 지성도, 기백도, 변화도 없다. 이 모든 미덕의 뿌리에 무가 있다. 야스오카는 박태준의 뿌리에 “우주 그 자체와 같은 적막”의 무가 있음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영웅의 본질을 “성실성”에서 찾는 칼라일의 영웅론은 성실성보다 더 깊은 곳에 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토마스 칼라일, 『영웅의 역사』(박상익 옮김, 소나무, 1997) 참조.

많은 경영학자들은 박태준의 리더십을 포항제철의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포항제철의 기업발전사 연구』의 참조.

이대환은 “철저한 완벽주의를 기초로 탁월한 통찰력, 신속한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을 조화시킨 역동성”이 그의 리더십의 요체라고 지적한다. 이대환, 앞의 책, p.368 참조.

이대환의 이 명석한 지적을 더 간단히 요약하면 지혜와 용기 두 마디가 된다. 지혜와 용기는 둘 다 일체의 사심을 버린 무심의 산물이다. 무심하기에 실상을 잘 볼 수 있어 지혜가 생기고, 더 이상 겁나는 게 없어 용기가 생긴다. 또 지혜가 있으므로 탁월한 통찰력과 신속한 판단력이 가능하고, 용기가 있으므로 강력한 추진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종합됨으로써 완벽주의의 기초 위에 통찰력, 판단력, 추진력을 조화시킨 역동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박태준의 포용력이다. 포용력이야말로 무심의 산물이다.

결사의 각오로 다져진 순교자적 사명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조국과 민족과 역사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5.16 혁명에 임했던 박정희는 “여기 장엄한 역사의 새 매듭에 즈음하여 나의 심정은 맑고 고요하다”고 썼다. 朴正熙, 앞의 책, pp.3-8 참조.

평생 박정희를 존경한 박태준에 대해서도 주위의 어느 지인은 “그의 성품이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다”고 증언한다. 신격호, 「담백하고 솔직한 인품」, 『우리 친구 박태준』, p.40.

이와 유사한 증언은 많다. 그의 무심은 종교적 신앙심이나 특별한 정신수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기업을 위해 결사의 각오로 다져진 순교자적 사명감에서 온다. 최말년에 기독교에 귀의했지만 그의 하나님 역시 그가 평생 간직해온 순교자적 사명감과 무심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기독교 귀의와 관련해서는 이대공, 앞의 글, 참조.

박태준은 평생 욕망하고 의지하고 활동하는 적극적 인간이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하고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나라에 태어났다”고 외치면서 조국근대화의 선봉에 섰다. 그는 스스로 천성이 靜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新種離散家族』, p.42 참조.

그는 단 한 번도 무위, 자연, 무심, 무욕 따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그에겐 게으름의 징표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체득하고 있었다. 바로 순교자적 사명감 때문이었다. 순교자적 사명감에서 오는 무심이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었고, 포용력과 추진력을 주었다. 바로 그 힘들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포항제철의 설립자가 박태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포항제철은 단지 “無의 顯現”일 뿐이다. 무가 아니고는 누가 그런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겠는가.

9. 조상의 혈세, 제철보국, 그리고 우향우 정신

해방공간의 혼란 속에서 박태준이 결사적인 조국애에 불타 군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조국은 있지도 아니했다. 그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맞서 군인으로서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고, 5.16 이후엔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빈곤에서 구해야 했다. 힘없고 가난한 나라도 그의 조국이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없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그에게 늘 미래의 과제로 주어져 있었고, 이 과제의 실행이 그가 가진 조국애의 진짜 요체였다. 그가 제철보국을 외치며 제철산업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을 때 제철산업 자체가 없었다. 준비된 것이라고는 영일만의 모래벌판뿐이었다. 종합제철소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는 반대마저 심했다. 그는 이 반대를 뚫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다. 그가 결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무한한 헌신행위뿐이었고 헌신대상은 늘 오리무중(五里霧中)이었다.

그는 미래의 과제로서 어렵פות게 주어져 있던 헌신대상을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헌신행위를 통해 하나하나 명료하게 가시화시켜나갔다. 헌신대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위해 더욱 헌신하면서 계속 그것을 개선해나갔다. 이처럼 헌신행위와 헌신대상이 순환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그와 대한민국, 그와 포항제철이 함께 강해져갔다. 그는 대한민국과 포항제철 앞에서 경건했다. 그의 헌신행위는 기도요 명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의 목숨을 건 정면

대결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헌신행위는 늘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다. 그는 6.25 때에는 최전방에서 공산군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5.16 이후에는 산업전선에서 빈곤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

빈곤 속에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비극이 다 응축되어 있으므로 빈곤은 우리 현대사 모든 비극의 종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빈곤과의 전투는 경제적인 의미만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과의 경쟁이었고, 분단의 저쪽에 있는 공산집단과의 이념대결이었으며, 또한 전쟁의 주범인 저 공산집단의 위협을 저지하는 평화투쟁이었다. 빈곤과의 전투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고 해방과 통일과 평화를 가져오는 관건이었다. 공산군과의 전투가 파괴적인 전투였던 것과는 달리 빈곤과의 총성 없는 이 전투는 허허 벌판에 거대한 공장을 세우는 생산적인 전투였다. 하지만 어느 쪽 전투이건 결사의 각오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일청구권 자금전용이 확정되고 나서 1969년 겨울, 박태준은 영일만 황량한 모래벌판에 사원들을 집합시키고 결사의 각오를 다진다. 이때 ‘조상혈세론’과 함께 저 유명한 ‘우향우 정신’이 공식화되고 ‘제철보국’의 기치가 올라간다. 그는 비장하게 외쳤다. “우리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제철보국! 이제부터 이 말은 우리의 확고한 생활신조요 인생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환, 앞의 책, pp.307-308.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새삼 결사의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이 비장한 외침으로부터 포항제철 건설의 서막이 올라간 것이다.

박태준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우리 조상의 무기력에 있다고 본다. “왜 그때 우리는 남을 때리진 않더라도 남의 주먹을 방어할 능력조차 없었느냐”고 그는 준엄하게 묻는다. 이대환, 앞의 책, p.842.

우리 조상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못난 조상 만나 후손이 생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그는 특히 조선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의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면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당당하게 설파했다. 우리 조상이 흘린 피에 대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는 대일청구권자금을 ‘조상의 혈세’라 불렀다. 그는 조상의 혈세로 제철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포항제철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반성하게 만드는 한편, 조상의 한(恨)을 풀기 위해서라도 포항제철 건설에 성공하고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여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 1 막을 연출한 공동연출자 가운데 한 명이다. 공동연출자 가운데 다른 한 명은 말할 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나라를 내어준 우리 조상이다. 한쪽은 두들겨 패고 한쪽은 얻어맞는 식민지의 비극. 이 비극은 연쇄적으로 분단과 전쟁과 빈곤의 비극을 낳았고, 그래서 비극의 어떤 장면에서나 원인을 따지다보면 일본의 강한 힘과 우리 조상의 무기력이 오버랩 되면서 울분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힘이 없어 일본한테 졌고, 그래서 저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 백성의 한(complex)이다. 이 한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다. 이 한이 계속되는 한 식민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없다. 우리는 아직 내심으로는 식민지 백성이다. 그래서 극일(克日)은 우리 민족 공통의 소망이 되었다. 축구를 하건 무얼 하건 다른 나라에는 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일본만은 이겨야 했다.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오기(傲氣)를 세웠다. 지난날의 식민종주국에 대한 식민지 백성의 이 별난 민족적 오기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만든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잘 살아보자는 우리 민족의 소망에는 일본보다 잘 살아보자는 소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늘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앞지르고자 했다. 극일 의지는 6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삼성의 이병철이나 현대의 정주영도 그랬고, 포철의 박태준은 특히 더 그랬다. 그의 조국애가 결사적이듯이 그의 극일 의지 또한 결사적이었다.

그의 극일 의지가 유별났던 것은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낸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감정적 이유로 반일(反日) 이데올로기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냉정했고 일본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최고의 선진국이고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유치한 반일감정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늘 무엇을 하건 세계 최고가 되고자 했고, 세계 최고를 향한 의지를 불태울 때마다 일본을 염두에 두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일본을 이기고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일본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일본의 힘을 잘 알고(知日), 일본의 힘을 잘 이용해서(用日), 일본을 확실하게 이긴다(克日)’는 것이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경영하면서 그가 일관되게 추진한 기본 전략이었다. 이대환, 앞의 책, p.286 참조
지일, 용일, 극일의 삼단계 대일(對日) 전략은, 일본으로부터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80년대 이후 우리 기술로 광양제철소를 건설하고 국제경쟁력을 세계최고로 끌어올려 일본철강업계를 제쳐버림으로써,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부터 그는 반일(反日)과 친일(親日)의 이분법 따위는 멀리 초월해 있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와 친했던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2000년 봄 김대중 정부의 총리직에서 물러난 노년의 박태준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귀하는 일본에 와서 하나라도 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가려고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귀하의 애국심에 나는 항상 감동합니다.” 이대환, 앞의 책, p.285.

애국심은 국경에 철저히 갇혀 있으면서도 국경을 뛰어넘는 이중성이 있는 모양이다. 일본에서 박태준의 인물됨에 처음으로 반한 사람은 야스오카였다. 그 뒤 이나야마 요시히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등 내노라하는 일본의 거물급 인사들은 하나 같이 그의 애국심과 인간미에 매료되었다. 박태준이라는 사나이가 품기는 매력은 국경을 넘어 적들까지 감동시켜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다. 특히 일본 총리를 지낸 다케시다 노보루와는 가슴을 터놓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그렇다 해도 일본은 일본이었다. 친구라 해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우선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개 숙일 일도 있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지만 굴욕감이 없었을 리 없다. 대일청구권자금을 ‘조상의 혈세’ 혹은 ‘조상의 핏값’이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박태준의 마음속에 식민지 백성의 한이 응어리져 있었다는 증거다. 그에게 조상의 혈세는 듣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꾸며낸 웅변용 수식어가 아니었다. 수식어나 늘어놓는 웅변은 듣는 이를 감동시키는 힘이 없다. 그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 조상의 혈세를 말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리라. 극일은 민족적 소망이기 이전에 그 자신의 소망이었다. 그의 조상혈세론은 식민지 백성의 한과 극일 의지를 공유하고 있던 창업동지들의 마음을 민족사적 사명감으로 불타게 만들었다.

진실로 그는 극일의 소망을 포항제철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 제철은 산업화의 기초이고, 산업화는 부국강병의 기초이며, 부국강병의 기초 위에서 민주화도 가능하다. 제철 분야에서 일본을 이긴다면 우리는 언젠가 일본보다 더 부강하고 더 민주화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 포항제철 건설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일의 전투였다. 그것도 일본의 힘을 빌려 일본을 이기려는 아주 기묘한 전투였다. “제철보국(製鐵報國)”이란 슬로건은 이 기묘한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의지와 희망의 표현이었다.

그의 제철보국을 이해하려면 은혜를 베풀어준 국가가 없었기에 실은 보답해야 할 국가도 없었다고 하는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 앞에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가 보기에 제철보국은 낡은 역사를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제철보국은 과거 언젠가 있었던 영광의 재현이 아니었다. 제철보국의 시제(時制)는 오로지 미래였다. 제철소도 부강한 나라도 지금껏 있는 적이 없고 단지 미래 속에만 있을 뿐이었다. 제철보국은 우리 현대사라는 비극의 대단원 속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오직 미래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에 철두철미 미래를 향한 그의 의지였다.

식민지의 한을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자의 제철보국 의지는, 도쿠가와 시대 이래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데다 천황제국가 아래에서 군국주의 침략에 열광하던 황국신민의 보국사상과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황국신민의 보국은 이미 있어온 영광스런 국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만큼 항상 과거회귀적인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박태준의 보국은 돌이켜 보기조차 싫은 낡은 역사를 극복하고 한시 바빠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보국’이란 말이 일제(日製)라 해서 그의 제철보국까지 일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의지(will)는 원래 과거와 현재의 난관을 뚫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래서 의지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것은 의지의 본래적 특징이 아니다. 의지는 과거회귀적인 기억(memory)과도 다르고 현재에 집착하는 감각(sensation)과도 다르다.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겪어온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은 어느 것 하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게 없었던 만큼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감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길뿐이었다. 돌아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 의지와 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새 역사 창조”가 박정희 시대의 슬로건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좌익 이상주의자들처럼 낡은 역사를 다 부정하자는 혁명론이 아니었다. 낡은 역사를 다 부정하고 나면 발을 디딜 곳마저 없어지므로 새 역사 창조도 불가능해진다. 새 역사 창조란 낡은 역사의 오욕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지난날 식민종주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움 받는 것도 낡은 역사의 오욕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박태준은 “우리 모두가 새 역사 창조를 향한 대열의 최선봉에 서자”고 외쳤다. 박태준, 「마지막 1 퍼센트의 의미」, 『신종이산가족』, p.105.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우리의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 운명을 극복하자는 말이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미래의 사명은 제철보국이었다. 온갖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 속의 제철소, 미래 속의 부강한 나라를 현실로 옮기자면 무엇보다 먼저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지가 강력해야 했다. 게다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다. 제철보국의 의지만이 유일한 자산이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박태준은 수도 없이 자주 강인한 의지를 주문했다. 제철보국이 민족사적 사명임을 자각하면 제철보국의 의지는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박태준은 조상혈세론을 내세워 우리 속에 잠재된 극일 의지와 접목시켰고, 다른 한편 “민족의 숙원”, “국민적 기대와 염원”, “지엄한 국민의 명령”,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는 말로 사명의식을 고취했다. 박태준, 「좌절과 고난에서 성취와 영광으로」, 『신종이산가족』, p.107.

더 나아가 그는 제철보국을 “우리의 확고한 생활신조요 인생철학”으로 삼자고 외쳤다. 이 말은 제철보국을 종교로 삼자는 뜻이었다. 그의 외침은 웅변용 레토릭이 아니었다. 그의 진심이었다. 그에게 제철은 이미 종교가 되어 있었다. 제철보국의 사명은 그에게 주어진 민족의 명령이고 신의 명령이었다. 그는 사원들에게도 자신이 믿는 ‘제철종교’로 개종하기를 요구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인에서 그치지 않고 순교자적 희생까지 마다않는 종교인이 되어 달라는 요구였다. 박태준은 이제 전사인 동시에 사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롬멜 장군”이란 별명과 함께 “철교(鐵敎) 교주,” “효자사 주지(住持)”란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맹기, 「열린 마음의 큰 그릇」, 『우리 친구 박태준』, p.63.

조상혈세론, 민족적 사명론, 제철종교론은 모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국심에 호소함으로써 사명의식을 고취했다. 사명의식의 고취는 제철보국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박태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하면 모두 같이 우항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고 외쳤다.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라 했으니 실패한다면 그의 말대로 조상에 죄를 짓는 셈이었다. 그렇다고 죽을 일까지 있을까. 한 번 실패했다고 죽기보다는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듯 매우 절박했다. 그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고는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고 외쳤다.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막다른 골목이니 결사의 각오로 영일만에 배수진을 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우항우 정신이다. 결사적인 조국애를 자신의 정신적 본질로 삼아온 한 사나이의 비장한 외침에서 우항우 정신이 탄생했다. 우항우 정신의 고향은 그의 결사적인 조국애였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민족사적 사명의식과 만나고 그 사명의식은 다시 우향우 정신의 결사의 각오로 다져지면서 제철보국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박태준의 의지도 더욱 단단해지고, 그를 따르던 사원들의 의지도 더욱 단단해졌다. 결사적인 조국애로 충만한 그의 진심이 감동의 파문을 일으켜 사원들의 마음을 흔든 때문이었다.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을 서면 병사들도 감동을 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그를 따른다. 그런 일이 영일만의 산업전선에서 일어났다. 조국과 기업을 신처럼 섬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사들로 일종의 “신앙촌”이 거기에 형성되었다. 박태준은 공사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은 미치광이란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죽어도 공장만은 지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뭉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사현장을 ‘신앙촌’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태준, 「씻물은 멈추지 않는다-6 화 포항제철 건설」.

조국과 기업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결사의 각오에서 나오는 지혜와 용기의 힘. 이 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우향우 정신이야말로 포항제철을 멋지게 성공시킨 힘의 원천이었다. 이대환, 앞의 책, pp.307-308.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새삼 결사의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이 비장한 외침으로부터 포항제철 건설의 서막이 올라간 것이다.

박태준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우리 조상의 무기력에 있다고 본다. “왜 그때 우리는 남을 때리진 않더라도 남의 주먹을 방어할 능력조차 없었느냐”고 그는 준엄하게 묻는다. 우리 조상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못난 조상 만나 후손이 생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그는 특히 조선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의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면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당당하게 설파했다. 우리 조상이 흘린 피에 대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는 대일청구권자금을 ‘조상의 혈세’라 불렀다. 그는 조상의 혈세로 제철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포항제철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반성하게 만드는 한편, 조상의 한(恨)을 풀기 위해서라도 포항제철 건설에 성공하고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여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 1 막을 연출한 공동연출자 가운데 한 명이다. 공동연출자 가운데 다른 한 명은 말할 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나라를 내어준 우리 조상이다. 한쪽은 두들겨 패고 한쪽은 얻어맞는 식민지의 비극. 이 비극은 연쇄적으로 분단과 전쟁과 빈곤의 비극을 낳았고, 그래서 비극의 어떤 장면에서나 원인을 따지다보면 일본의 강한 힘과 우리 조상의 무기력이

오버랩 되면서 울분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힘이 없어 일본한테 졌고, 그래서 저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 백성의 한(kompleks)이다. 이 한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다. 이 한이 계속되는 한 식민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없다. 우리는 아직 내심으로는 식민지 백성이다. 그래서 극일(克日)은 우리 민족 공통의 소망이 되었다. 축구를 하건 무얼 하건 다른 나라에는 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일본만은 이겨야 했다.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오기(傲氣)를 세웠다. 지난날의 식민중주국에 대한 식민지 백성의 이 별난 민족적 오기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케 만든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잘 살아보자는 우리 민족의 소망에는 일본보다 잘 살아보자는 소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늘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앞지르고자 했다. 극일 의지는 6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삼성의 이병철이나 현대의 정주영도 그랬고, 포철의 박태준은 특히 더 그랬다. 그의 조국애가 결사적이듯이 그의 극일 의지 또한 결사적이었다.

그의 극일 의지가 유별났던 것은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낸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감정적 이유로 반일(反日) 이데올로기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냉정했고 일본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최고의 선진국이고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유치한 반일감정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늘 무엇을 하건 세계 최고가 되고자 했고, 세계 최고를 향한 의지를 불태울 때마다 일본을 염두에 두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일본을 이기고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일본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일본의 힘을 잘 알고(知日), 일본의 힘을 잘 이용해서(用日), 일본을 확실하게 이긴다(克日)’는 것이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경영하면서 그가 일관되게 추진한 기본 전략이었다. 이대환, 앞의 책, p.286 참조 지일, 용일, 극일의 삼단계 대일(對日) 전략은, 일본으로부터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80년대 이후 우리 기술로 광양제철소를 건설하고 국제경쟁력을 세계최고로 끌어올려 일본철강업계를 제쳐버림으로써,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부터 그는 반일(反日)과 친일(親日)의 이분법 따위는 멀리 초월해 있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와 친했던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2000년 봄 김대중 정부의 총리직에서 물러난 노년의 박태준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귀하는 일본에 와서 하나라도 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가려고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귀하의 애국심에 나는 항상 감동합니다.” 이대환, 앞의 책, p.285.

애국심은 국경에 철저히 갇혀 있으면서도 국경을 뛰어넘는 이중성이 있는 모양이다. 일본에서 박태준의 인물됨에 처음으로 반한 사람은 야스오카였다. 그 뒤 이나야마 요시히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등 내노라하는 일본의 거물급 인사들은 하나 같이 그의 애국심과 인간미에 매료되었다. 박태준이라는 사나이가 풍기는 매력은 국경을 넘어 적들까지 감동시켜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다. 특히 일본 총리를 지낸 다케시다 노보루와는 가슴을 터놓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그렇다 해도 일본은 일본이었다. 친구라 해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우선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개 숙일 일도 있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지만 굴욕감이 없었을 리 없다. 대일청구권자금을 ‘조상의 혈세’ 혹은 ‘조상의 핏값’이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박태준의 마음속에 식민지 백성의 한이 응어리져 있었다는 증거다. 그에게 조상의 혈세는 듣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꾸며낸 웅변용 수식어가 아니었다. 수식어나 늘어놓는 웅변은 듣는 이를 감동시키는 힘이 없다. 그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 조상의 혈세를 말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리라. 극일은 민족적 소망이기 이전에 그 자신의 소망이었다. 그의 조상혈세론은 식민지 백성의 한과 극일 의지를 공유하고 있던 창업동지들의 마음을 민족사적 사명감으로 불타게 만들었다.

진실로 그는 극일의 소망을 포항제철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 제철은 산업화의 기초이고, 산업화는 부국강병의 기초이며, 부국강병의 기초 위에서 민주화도 가능하다. 제철 분야에서 일본을 이긴다면 우리는 언젠가 일본보다 더 부강하고 더 민주화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 포항제철 건설은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일의 전투였다. 그것도 일본의 힘을 빌려 일본을 이기려는 아주 기묘한 전투였다. “제철보국(製鐵報國)”이란 슬로건은 이 기묘한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의지와 희망의 표현이었다.

그의 제철보국을 이해하려면 은혜를 베풀어준 국가가 없었기에 실은 보답해야 할 국가도 없었다고 하는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 앞에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가 보기에 제철보국은 낡은 역사를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제철보국은 과거 언젠가 있었던 영광의 재현이 아니었다. 제철보국의

시제(時制)는 오로지 미래였다. 제철소도 부강한 나라도 지금껏 있는 적이 없고 단지 미래 속에만 있을 뿐이었다. 제철보국은 우리 현대사라는 비극의 대단원 속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오직 미래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에 철두철미 미래를 향한 그의 의지였다.

식민지의 한을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자의 제철보국 의지는, 도쿠가와 시대 이래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데다 천황제국가 아래에서 군국주의 침략에 열광하던 황국신민의 보국사상과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황국신민의 보국은 이미 있어온 영광스런 국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만큼 항상 과거회귀적인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박태준의 보국은 돌이켜 보기조차 싫은 낡은 역사를 극복하고 한시 바빠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보국’이란 말이 일제(日製)라 해서 그의 제철보국까지 일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의지(will)는 원래 과거와 현재의 난관을 뚫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래서 의지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집착하는 것은 의지의 본래적 특징이 아니다. 의지는 과거회귀적인 기억(memory)과도 다르고 현재에 집착하는 감각(sensation)과도 다르다.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겪어온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은 어느 것 하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게 없었던 만큼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감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길뿐이었다. 돌아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 의지와 행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새 역사 창조”가 박정희 시대의 슬로건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좌익 이상주의자들처럼 낡은 역사를 다 부정하자는 혁명론이 아니었다. 낡은 역사를 다 부정하고 나면 발을 디딜 곳마저 없어지므로 새 역사 창조도 불가능해진다. 새 역사 창조란 낡은 역사의 오욕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지난날 식민종주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움 받는 것도 낡은 역사의 오욕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박태준은 “우리 모두가 새 역사 창조를 향한 대열의 최선봉에 서자”고 외쳤다. 박태준, 「마지막 1 퍼센트의 의미」, 『신종이산가족』, p.105.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우리의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 운명을 극복하자는 말이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미래의 사명은 제철보국이었다. 온갖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 속의 제철소, 미래 속의 부강한 나라를 현실로 옮기자면 무엇보다 먼저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지가 강력해야 했다. 게다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다. 제철보국의 의지만이 유일한 자산이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박태준은 수도 없이 자주 강인한 의지를 주문했다. 제철보국이 민족사적 사명임을 자각하면 제철보국의 의지는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박태준은 조상혈세론을 내세워

우리 속에 잠재된 극일 의지와 접목시켰고, 다른 한편 “민족의 숙원”, “국민적 기대와 염원”, “지엄한 국민의 명령”,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는 말로 사명의식을 고취했다. 박태준, 「좌절과 고난에서 성취와 영광으로」, 『신종이산가족』, p.107.

더 나아가 그는 제철보국을 “우리의 확고한 생활신조요 인생철학”으로 삼자고 외쳤다. 이 말은 제철보국을 종교로 삼자는 뜻이었다. 그의 외침은 웅변용 레토릭이 아니었다. 그의 진심이었다. 그에게 제철은 이미 종교가 되어 있었다. 제철보국의 사명은 그에게 주어진 민족의 명령이고 신의 명령이었다. 그는 사원들에게도 자신이 믿는 ‘제철종교’로 개종하기를 요구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인에서 그치지 않고 순교자적 희생까지 마다않는 종교인이 되어 달라는 요구였다. 박태준은 이제 전사인 동시에 사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롬멜 장군”이란 별명과 함께 “철교(鐵敎) 교주,” “효자사 주지(住持)”란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맹기, 「열린 마음의 큰 그릇」, 『우리 친구 박태준』, p.63.

조상혈세론, 민족적 사명론, 제철종교론은 모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국심에 호소함으로써 사명의식을 고취했다. 사명의식의 고취는 제철보국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박태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하면 모두 같이 우항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고 외쳤다.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라 했으니 실패한다면 그의 말대로 조상에 죄를 짓는 셈이었다. 그렇다고 죽을 일까지 있을까. 한 번 실패했다고 죽기보다는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듯 매우 절박했다. 그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고는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고 외쳤다.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막다른 골목이니 결사의 각오로 영일만에 배수진을 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우항우 정신이다. 결사적인 조국애를 자신의 정신적 본질로 삼아온 한 사나이의 비장한 외침에서 우항우 정신이 탄생했다. 우항우 정신의 고향은 그의 결사적인 조국애였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민족사적 사명의식과 만나고 그 사명의식은 다시 우항우 정신의 결사의 각오로 다져지면서 제철보국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박태준의 의지도 더욱 단단해지고, 그를 따르던 사원들의 의지도 더욱 단단해졌다. 결사적인 조국애로 충만한 그의 진심이 감동의 파문을 일으켜 사원들의 마음을 흔든 때문이었다.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을 서면 병사들도 감동을 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그를 따른다. 그런 일이 영일만의 산업전선에서 일어났다. 조국과 기업을 신처럼 섬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사들로 일종의 “신앙촌”이 거기에 형성되었다. 박태준은 공사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은 미치광이란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죽어도 공장만은 지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뭉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사현장을 ‘신앙촌’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태준, 『씻물은 멈추지 않는다-6 화 포항제철 건설』.

조국과 기업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결사의 각오에서 나오는 지혜와 용기의 힘. 이 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우항우 정신이야말로 포항제철을 멋지게 성공시킨 힘의 원천이었다.

10. 자주관리

박태준은 1973 년부터 자주관리를 도입했는데, 1979 년 2 월 1 일 포항 4 기 종합착공식 이후 자주관리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주관리 운동은 자기계발과 상호계발을 행하여 분임조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며,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며, 상사의 방침을 달성하고 회사의 영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이라고 박태준은 규정했다. 자기계발과 상호계발, 개인성장과 회사발전을 동시에 기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누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가지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자주관리라는 말이다.

자주는 자율을 의미하고 관리는 타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주관리는 알고 보면 모순적인 용어다. 논리적으로는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타율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자율과 타율, 자주와 관리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 박태준의 강조점은 물론 자주에 있었다. 종업원들이 제철보국의 사명감에 투철하여 자주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위해 헌신한다면 누가 위에서 타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비용효율의 측면에서도 물론 유리하다. 그만큼 관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태준이 자주관리를 강조하게 된 것은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종업원 개개인이 인격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카리스마적 경영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격이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러나 내가 이 공장을 맡을 때는 전쟁터에 나온 소대장의

결의 이상의 다짐으로 시작했소. 이 사업이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보아 국가의 기증 하나가 빠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오.” 이대환, <박태준>, p.433.

박태준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포항제철 건설을 시작했고,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이 부하들의 인격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는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래서 자주관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자주관리는 박태준의 경영방침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했다.

박태준이 자주관리를 강조하기 시작한 1979 년은 박대통령이 서거하고 유신정치가 막을 내린 해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이 서거하던 바로 그날인 10 월 26 일 연수원 특강에서 박태준은 국가와 기업의 성장과정을 비교하면서 포항제철에도 자주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 발전의 유소년기에는 국가이익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년기에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박정희 한 사람이 국가를 이끌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한 발언이었다.

박태준은 기업의 성장, 발전과정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았다.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의 유소년기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의 방침대로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리더십의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사장 한 사람의 판단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청년기의 국가에는 민주화가 필요하듯이, 청년기의 기업에는 자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민주화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주관리는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태준이 혼자서 포항제철을 이끌던 리더십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은 회사가 시련과 개척의 시기를 넘어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자주관리는 박태준 혼자만 사장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원 모두가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원 모두가 회사의 사장이라는 주인의식 혹은 자주주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사원 각자가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관리의 핵심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사원들의) 안목의 국제화가 우리 자주관리의 성공의 요체”라는 박태준의 말이다. 국제수준의 안목은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장 정도 되어야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안목의 국제화가 자주관리의 요체라는 것은 모든 사원의 사장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태준은 단 한 번도 포항제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었다. 언제라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자는

언제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사심, 사욕이 없는 박태준의 맑은 마음이 경영방침을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자주관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1. 박태준과 정약용

누군가가 다산 정약용과 청암 박태준을 비교했다. 두 거물의 비교는 흥미롭다.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학자도 그냥 학자가 아니라 유학자, 그것도 철저한 유학자였다. 반면 박태준은 학자나 유학자가 아니라 군인이고 기업인이다. 박태준은 평생 광범위한 독서를 즐긴 지식인이었지만 유학만큼은 좋아하지 않았다. 유학에 대한 그의 태도는 박정희처럼 경멸로 일관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태준과 같은 군인이나 기업인은 애초에 거론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정약용과 박태준은 이처럼 대척적(對蹠的)이다. 그래서 흥미롭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약용이 한 일은 무엇인가? 정약용은 꿈은 쇠락 일로를 걸어가던 조선조를 일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를 실학자로 부른다. 정약용의 꿈은 박태준의 꿈과 흡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걸어간 길은 정반대였다. 관직에서 밀려난 정약용은 길고 긴 유배시절을 보내야 했으니, 자신의 꿈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없었다. 박태준에 비하면 정약용은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박태준은 박정희 치하에서 유위(有爲)의 기회를 얻었지만, 정약용은 순조 치하에서 유배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행동을 포기하고 글쓰기를 택했다. 글쓰기로 유배의 한(恨)을 풀고자 했다. 글쓰기가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행동을 방해할지 모른다. 글쓰기에 골몰하다 보면 생동의 순간은 자꾸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한 글이 글을 낳을 때마다 행동의 순간에 필요한 강령은 자꾸 복잡해진다. 강령이 복잡해지면 행동은 더욱더 멀어진다. 행동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글이 글을 낳는 글쓰기를 자꾸 더하게 만들 수도 있다. 행동의 유보 속에서 저 방대한 규모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실학의 금자탑은 행동의 유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여유당전서>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전서가 보여주는 실학을 조선의 현실 속에 옮겨 놓자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했다. 과감하게 행동하려면 당연히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유배자의 처지에서 행동하자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꺾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체제 전복이라는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행동의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그에겐 스스로 행동할 생각조차 없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여유당전서>가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림을 잘 알면서도 정약용에게는 행동에의 의지, 꺾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는 유학자, 그것도 당시의 주자학자보다 더 보수적인 유학자였다. 보수적인 유학자의 조심스러움을 그는 끝내 털어버리지 못했다. 그의 호 “여유당”의 “여유”은 행동에 앞서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가리킨다.

자신의 나라가 누란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진단해 놓고도, 끝내 행동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문사에 의해 지배되는 문치주의 국가 조선에서는 참으로 권장할 만한 행동이다. 글쓰기는 명예와 출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생각하고 글을 썼던 정약용이 자신의 개혁안을 탁상공론으로 방치하는 것은 자신이 염려해 마지않던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글은 오래 남고 행동은 기억에서 곧 사라지지만 인간세상을 바꾸는 것은 글이 아니라 행동이다. 글은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정약용을 애호했던 정조(正祖) 역시 너무 많은 글을 썼다. 호한함을 자랑하는 <홍재전서(弘齋全書)>는 글쓰기에 탐닉하는 호학(好學)의 군주 정조의 실패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제왕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행동이다. 제왕은 말과 글에 몰두할 겨를조차 없이 행동하기에도 바쁘다. 행동하려면 매 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 행동의 순간을 놓치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조는 말을 꾸미고 글을 다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노론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시간에 그는 말을 하고 글을 썼던 것인지도 모른다.

정조는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 거두긴 했지만 그 자신은 철두철미 주자학자였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주자학자였다. <홍재전서>에는 정책 실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사(經史)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매우 많다. 자신의 지식으로 신하들을 압도하려는 의도가 엿보기도 한다. 그리고 정조도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유학자이기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학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이 두 사람에게에는 없었다. 유학은 그들에게 불변의 진리였다. 조선후기 다른 모든 실학자들에게도 유학은 불변의 진리였다.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에 실학의 치명적 한계가 있다. 실용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유학자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실학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조선후기 실학은 참된 실학이 아니었다.

박태준이 정조나 정약용이 처했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목숨 걸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박태준에게 중요한 것은 늘 행동이었다. 말하고

글을 쓰기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황무지에서 포항제철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는 오직 행동하기 위해서만 말하고 글을 썼다. 그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어록은 모두 행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태준이야말로 참된 실학자였다.

실제로 우리를 곤경에서 구해주는 것은 행동이지 말이나 글이 아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는 것은 행동이지 말이나 글이 아니다. 어떤 말이나 글이라도 우리의 행동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포항제철을 <홍재전서>나 <여유당전서>에 비교할 수는 없다. <홍재전서>가 보여주는 주자학자 정조의 사상이나 <여유당전서>가 보여주는 실학자 정약용의 사상으로는 포항제철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 책들은 무엇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아가는 문을 닫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준은 그런 <전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말과 글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행동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그는 말을 꾸미고 글을 다듬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한가한 서재의 학자가 전혀 아니었다.

13. 박태준과 사랑의 정신

나라를 빼앗긴 식민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사랑을 실천한다면 박태준처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 갖는 애국심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태준과 같은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 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다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박태준의 애국심, 애사심.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우주적 사랑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다.

역사세계 안에서 인간의 사랑은 낭만적일 수 없고 보편적일 수 없다. 목자가 말한 “겸애(兼愛),” 다시 말해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 사랑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사랑도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친구와 조국이 있는 한 실제로는 불가능한 낭만적 꿈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 사랑은, 때로는 내 가족이 먼저일 수 있고, 때로는 내 나라가 먼저일 수 있고, 때로는 내 회사가 먼저일 수 있다. 박태준의 사랑은 언제나 내 나라가 먼저였다. 내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애국을 위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사랑의 정신은 하나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박태준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나라사랑이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정신은 자신의 조국도 넘어서고, 심지어는 포항제철까지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모했지만 박정희가 중대 결단을 할 때마다 여러 차례에 반대를 표하거나 찬성을 표하지 않았다. 박태준은 이런 식으로 박정희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박태준은 일본의 몇몇 지인(知人)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보다 후진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그의 사랑은 한 기업, 한 나라를 넘어 인류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애국심, 애사심이 눈물겹게 느껴지는 그래서이다. 그의 애국심, 애사심은 분명히 국가와 기업이라는 세속의 차원에 머무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초세속적인 감동을 준다. 이 역시 그래서일 것이다. 그의 애사심은 기업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의 애국심은 국수주의 혹은 제국주의로 번지지 않았다. 그래서 박태준은 자신의 주군, 자신의 나라, 자신의 회사에 갇혀 그 너머를 알지 못하는 일본의 사무라이들과는 달랐다.

그의 사랑은 사심을 다 버린 그의 텅 빈 마음,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에서 나왔다. 신격호는 말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의 성품이 티끌 한 점 맑고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람이 맑다는 것은 무능하고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의 인간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본 후, 나는 그의 맑고 깨끗한 정신이 마침내 한국경제에 반영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우리 친구 박태준>, p.49.

신격호는 박태준의 무심(無心) 혹은 무사심(無私心)이 한국경제에 반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엄청난 유위(有爲)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박태준의 무심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의도적인 수행의 결과가 전혀 아니었다. 그는 노장이나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야스오카 마사히로가 말하는 양명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無)에 대해 열심히 떠벌이는 자들이 무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박태준은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조국에 대한 사랑, 그것뿐이었다. 목숨을 건 조국애 일념(一念)이 그의 마음에서 일체의 사욕을 밀어내고 그의 마음을 텅텅 비워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는 평생토록 조국을 화두(話頭)로 삼아 수행을 하고, 조국을 하느님으로 믿으면서 기도를 해왔다.

성자의 길과 영웅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앞에서 말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의 어떤 일에라도 일념으로 몰입할 때, 그것이 곧 구원이고

해탈이다. 사심 없이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자신의 마음이 빈 거울처럼 맑고 깨끗해진다. 그 때 엄청난 파위가 나온다고 앞에서 말했다. 노자는 “유는 무에서 생긴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무에서 나온 유가 바로 지혜와 용기로 요약되는 저 엄청난 파위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무에서 나온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무엇보다 먼저 무로 돌아가야 한다. 리더는 자신을 비우는 자이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는 회사의 머슴이라 생각하고 일했다”고 박태준은 말한다. 이대환, <박태준>, p.654.

“회사의 머슴”이란 말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가 70년대부터 중시한 자주관리는 사원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그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머슴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항공단 설립 시 그는 김호길 총장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이 역시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1988년 국민주를 발행할 때 그는 단 한 주도 받지 않았다. 90년대 말 일본 망명에서 돌아와 정계에 참여할 때 산업화의 영웅이었던 그는 자신의 반대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화의 영도자 김대중과 악수했다. 이 역시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리더와 팔로워(follower)를 흔히 둘로 나눈다. 또 영웅과 성자를 둘로 나눈다. 영웅은 리더에 가깝고 성자는 팔로워에 가깝다. 영웅은 부하를 이끌고 성자는 하느님의 말씀 혹은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더와 팔로워, 영웅과 성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리더야말로 진정한 팔로워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리더이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진정으로 팔로워이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리더는 자신의 욕망과 소망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박태준은 가난하고 힘없는 동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욕망과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박태준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였다. 그의 삶은 봉사로 일관한 삶이었다. 그는 우리보다 위에 있지 않고 우리보다 밑에 있었다. 그는 우리가 기피하는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6.25 때에는 총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을 누볐고, 개발연대에는 산업전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리더일 수 있었다.